2019. 1. 1.~ 2019. 12. 31.
http://council.haeundae.go.kr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해운대의정

HAEUNDAE GU COUNCIL

제13호

해운대구의회
HAEUNDAE-GU COUNCIL

HAEUNDAE-GU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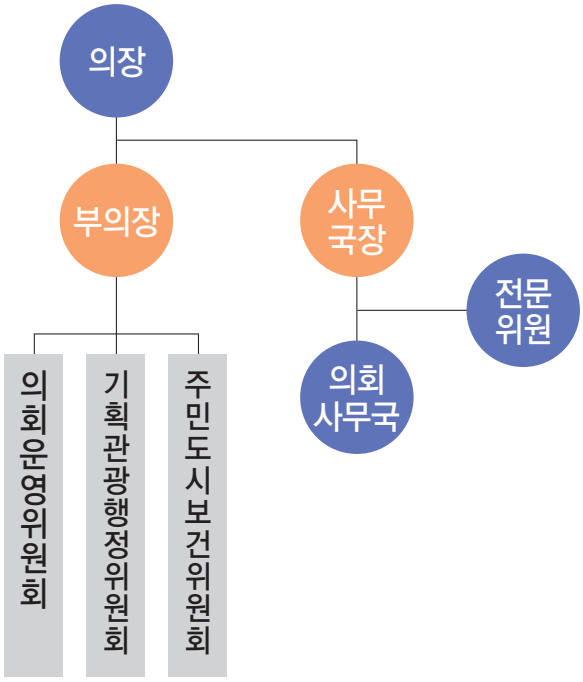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8대 의원현황

CURRENT MEMBERS OF THE COUNCIL

(2018. 7. 1 ~ 2020. 6. 30)

- 조 직 : 3상임위원회, 1사무국
- 의 원 : 18명(지역구 16명, 비례 2명)
- 직 원 : 18명



전반기

의장 **이 명 원**
Chairman **Lee Myung Won**

부의장 **임 말 숙**
Vice Chairman **Lim Mal Suk**

원 영 숙
의회운영위원장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Won Young Suk**

조 영 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Member **Jo Young Jin**

김 정 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
Member **Kim Jung Wook**

문 현 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Moon Hyun Shin**

김 경 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Kim Kyung Ho**

최 은 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Choi Eun Young**

김 상 수
의회운영위 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Kim Sang Soo**

김 백 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Kim Baek Chul**

박 성 식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Park Sung Sik**

장 성 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Jang Sung Chul**

이 상 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Member **Lee Sang Gon**

박 기 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Park Ki Hoon**

김 성 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Kim Sung Gun**

서 정 학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Seo Jung Hak**

정 순 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부위원장
Member **Jung Soon Se**

김 혜 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Kim Hye Jin**

우리는 해운대구민 여러분의 일꾼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으로
작은 약속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기 좋은 해운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Through practicing transparent and clean activities one by one,
we will make Haeundae a place to live well. We are your real representive.

세대와 공감하는 열린 의회
미래를 지향하는 창조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 의회

Contents

인사말	03
해운대구 현황	04
의회연혁	05
의안처리	06
의원발의	15
구정질문	24
5분 자유발언	33
의원칼럼	59
의정스케치	79

제13호
(2019. 01. 01~2019. 12. 31)

발행인 의장 이명원
발 행 해운대구의회
편 집 의회사무국

의장 이 명 원

해운대구의회는 항상 주민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해운대 구민 여러분!

해운대구의회가 전국 최고의회가 되기 위한 발걸음을 크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마가편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저희는 초심을 잊지 않고 모범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출범 2년 차를 맞아 2019년 한 해 기초의회 본연의 역할인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민생현장에서 솔선수범 민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중심의 해운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시대착오적인 비효율을 과감하게 개선했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불요불급한 곳에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정의 양대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30년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구민들을 모시고 공무 국외연수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따끈따끈한 의회 소식을 구민 여러분께 지속해서 공유해 왔습니다. 정례회 기간에는 지역방송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모습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께 해운대의정을 통해 지난 일 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어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중소 자영업자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전 지구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루빨리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개인 위생관리 잘 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The present of Haeundae Gu

해운대는 우리나라 최남단 해양수도 부산의 관광지로 신라 말의 석학 고운(孤雲) 최치원 선생의 자(字) "해운(海雲)"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해운대는 해수욕장, 동백섬, 달맞이 언덕, 해운대 온천 등 산과 강, 바다와 온천이 있는 사포지향(四抱之鄕)의 고장이며 관광의 도시입니다.

컨벤션 · 영상 · 해양레저 특구로서 달맞이온천축제, 모래축제, 바다축제 등 사계절 축제가 열리고 아쿠아리움, 요트경기장, 벡스코와 미술관 갤러리, 추리문학관 등 각종 문화 · 관광시설이 있는 부산의 문화관광중심도시입니다.

더불어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 초고층 주거단지의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국제전시 · 컨벤션 센터인 제 1 · 2 벡스코가 조성되어 있는 세계적 명품도시입니다. 지하철 2 · 3 · 4호선, 광안대로, 부 · 울고속도로 복선화에 이어 센텀~만덕 도시고속화 도로가 건설되는 등 명실상부한 동부산권 교통 · 물류 요충지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 인　　구 : 약 406,204명
- 면　　적 : 51.47㎢ (부산 768.4㎢의 6.7%)
- 행정기구 : 5국 1실 1관 22과 102담당 1보건소(2과2지소) 3사업소
- 공 무 원 : 1,034명
- 재정규모 : 6,291억원

(2019. 12. 31. 기준)

의회 연혁

■ 제8대 해운대구의회 2018~2022

2018. 07. 03 제8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2018. 7. 3 ~ 2020. 6. 30) 의장 : 이명원(李明源), 부의장 : 임말숙(任末淑)
2018. 07. 01 제8대의회 개원 **2018. 06. 13** 제8대의원 선거(18명 ☞ 지역구 16명, 비례대표 2명)

■ 제7대 해운대구의회 2014~2018

2016. 07. 16 제7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2016. 7. 16 ~ 2018. 6. 30) 의장 : 정성철(鄭成撤), 부의장 : 이명원(李明源)
2016. 07. 16 제7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2014. 7. 16 ~ 2016. 7. 15) 의장 : 이문환(李文煥), 부의장 : 이명원(李明源)
2014. 07. 01 제7대의회 **2014. 06. 04** 제7대의원 선거(17명 ☞ 지역구 15명, 비례대표 2명)

■ 제6대 해운대구의회 2010~2014

2012. 07. 06 제6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2012. 7. 6 ~ 2014. 6. 30) 의장 : 이안호(李岸鎬), 부의장 : 홍성운(洪性雲)
2010. 07. 06 제6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2010. 7. 6 ~ 2012. 7. 5) 의장 : 라외순(羅外順), 부의장 : 윤병주(尹炳柱)
2010. 07. 01 제6대의회 개원 **2010. 06. 02** 제6대의원 선거(17명 ☞ 지역구 15명, 비례대표 2명)

■ 제5대 해운대구의회 2006~2010

2010. 01. 01 위원회 명칭 변경(기획주민행정 → 기획관광행정, 관광환경도시 → 주민도시보건)
2008. 07. 05 제5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2008. 7. 6 ~ 2010. 6. 30) 의장 : 안상호(安相浩), 부의장 : 정성철(鄭成撤)
2006. 07. 06 제5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2006. 7. 6 ~ 2008. 7. 5) 의장 : 박선동(朴先同), 부의장 : 서강식(徐江植)
2006. 07. 01 제5대의회 개원
2006. 06. 30 위원회 명칭 변경(기획총무 → 기획주민행정, 사회도시 → 관광환경도시)
2006. 05. 31 제5대의원 선거(17명 ☞ 지역구 15명, 비례대표 2명)

■ 제4대 해운대구의회 2002~2006

2004. 07. 09 제4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2004. 7. 10 ~ 2006. 6. 30) 의장 : 김용환(金容煥), 부의장 : 정장춘(鄭長春)
2002. 07. 10 제4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2002. 7. 10 ~ 2004. 7. 9) 의장 : 김영수(金瑩秀), 부의장 : 양철용(梁哲容)
2007. 07. 01 제4대의회 개원 **2002. 06. 13** 제4대의원 선거(15명)

■ 제3대 해운대구의회 1998~2002

2000. 07. 07 제3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2000. 7. 8 ~ 2002. 6. 30) 의장 : 박정희(朴正禧), 부의장 : 허 훈(許 燻)
1998. 07. 08 제3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1998. 7. 8 ~ 2000. 7. 7) 의장 : 정홍정(鄭弘政), 부의장 : 윤정춘(尹晶春)
1998. 07. 01 제3대의회 의회 개원 **1998. 06. 04** 제3대의원 선거(14명)

■ 제2대 해운대구의회 1995~1998

1997. 04. 12 위원회 명칭 변경(총무 → 기획총무)
1996. 12. 31 제2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1997. 1. 10 ~ 1998. 6. 30) 의장 : 신중복(愼重福), 부의장 : 황준연(黃峻淵)
1995. 07. 10 제2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1995. 7. 10 ~ 1997. 1. 9) 의장 : 윤경현(尹慶鉉), 부의장 : 박정희(朴正熹)
1995. 07. 01 제2대의회 개원 **1995. 04. 12** 제2대의원 선거(20명)

■ 초대 해운대구의회 1991~1995

1995. 05. 29 위원회 명칭 변경(총무사회 → 총무, 도시산업 → 사회도시)
1994. 03. 10 위원회 명칭 변경(총무사회산업 → 총무사회, 도시 → 도시산업)
1993. 04. 13 초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1993. 4. 15 ~ 1995. 6. 30) 의장 : 최해주(崔海柱), 부의장 : 신중복(愼重福)
1992. 03. 12 상임위원회 설치(총무사회산업, 도시, 의회운영)
1991. 04. 15 초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1991 4. 15 ~ 1993. 4. 14) 의장 : 이태옥(李太玉), 부의장 : 최해주(崔海柱)
1991. 04. 15 초대의회 개원 **1991. 03. 26** 초대의원 선거(20명)

해운대의정

01

의안처리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선진의회

council.haeundae.go.kr

총괄

구분	합계	조례안	예산안(기금)	승인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의견청취	규칙안	구정질문	5분발언	기타
계	156	76	8	19	2	2	4	3	25	17

회기별 현황

회기별	심의처리		심의처리	
			조례	기타(조례외)
구분	7회 (임시회 5 정례회 2)	89	76	80
제239회 임시회	2019. 02. 13. ~ 2019. 02. 19.	7	6	10
제240회 임시회	2019. 03. 20. ~ 2019. 03. 29.	10	13	10
제241회 임시회	2019. 05. 08. ~ 2019. 05. 14.	7	9	16
제242회 정례회	2019. 06. 12. ~ 2019. 06. 24.	13	13	6
제243회 임시회	2019. 08. 29. ~ 2019. 09. 06.	9	13	11
제244회 임시회	2019. 10. 15. ~ 2019. 10. 24.	10	12	9
제245회 정례회	2019. 11. 11. ~ 2019. 12. 13.	33	10	18

의안심의 결과

구분		발의 · 제출			심사결과		의원				구청장				철회	
		총계	의원	구청장	처리(철회포함)	미처리(보류 등)	원안	수정	부결	보류	원안	수정	부결	보류	의원	구청장
계		156	76	80	152	4	62	10	1	2	58	11	6	2	1	3
조례안	제정	26	14	12	23	3	7	5		2	5	2	2	1		2
	개정	48	10	38	47	1	5	4	1		29	3	4	1		1
	폐지	2		2	2						2					
예산안/기금		8	1	7	8		1				1	6				
승인안		12	3	9	12		3				9					
동의안		10		10	10						10					
건의안																
결의안		2	2		2		2									
추천안		1	1		1		1									
규칙안		4	4		4		3	1								
의견청취		2		2	2						2					
구정질문		3	3		3		3									
5분 자유발언		25	25		25		24								1	
기타		13	13		13		13									

제239회 임시회

2019.02.13. ~ 2019.02.19.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김백철, 김삼현, 김대일, 박도근)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보류
-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

구정질문 / 5분 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김상수 – 해운대에는 관광기념품이 없다)
- 5분 자유발언(원영숙 – 마린시티, 미개발부지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 5분 자유발언(이상곤 –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를 바라며)
- 5분 자유발언(문현신 – 해수욕장은 우리 모두의 공공자원이다)
- 5분 자유발언(원영숙 – 이광수 시비, 해운대가 풀어야 할 친일청산 과제다)

제240회 임시회

2019.03.20. ~ 2019.03.29.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제11기 해운대에너지자원센터 주민지원협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철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좌동청소년문화의집)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239회 보류) ▶ 수정가결

구정질문 / 5분 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서정학 – 원전 비상계획구역 확대하고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해야…)
- 5분 자유발언(김혜진 – 반여4동 내 추진사업의 조속한 진행과 차질없는 마무리를 바라며)
- 5분 자유발언(원영숙 – 해운대 한옥문화도서관 건립으로 고품격 부산을 만들자!)
- 5분 자유발언(김백철 – 평화가 다가온다. 준비하라 해운대)
-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 (마을 민주주의 연구회)
-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원영숙, 김상수, 박기훈, 김성군, 김경호, 박성식, 이상곤, 김혜진)

제241회 임시회

2019.05.08. ~ 2019.05.14.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안 ▶ 보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센텀2지구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
- 해운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업지역 내 공장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데니스 오펜하임 챔버(꽃의내부)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힐스테이트위브) ▶ 보류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구정질문 / 5분 자유발언

- 구정질문(박기훈 – 도시공원 조성 추진실태 및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 5분 자유발언(장성철 – 반여3동 일신여객 차고지 활용 방안)
- 5분 자유발언(정순세 – 입주민을 위하여 집행기관이 나설 때다)
- 5분 자유발언(서정학 – 임도가 산림을 살린다)
- 5분 자유발언(최은영 – 주민의 니즈에 답이 있다)
- 5분 자유발언(김혜진 – 달맞이고개 벚꽃길 야간활용을 위한 제언)
- 5분 자유발언(문현신 – 혈세 먹는 해파리)
- 의원 연구단체 등록 (임말숙 – 4차 산업혁명시대 지방의회 대응 전략 연구회)

제242회 정례회

2019.06.12. ~ 2019.06.24.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 보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 안전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부산광역시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힐스테이트위브)(241회 보류)

구정질문 / 5분 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감상수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 현실화 촉구)
-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문현신, 장성철, 박기훈, 정순세, 김경호, 최은영, 박성식, 김혜진)

제243회 임시회

2019.08.29. ~ 2019.09.09.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립어린이집(국공립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동부꿈나무어린이집 등 3개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도시재생뉴딜사업)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2동어린이놀이시설 조성)
- 어촌뉴딜300(청사포항) 공모신청 및 지방비 편성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구정질문 / 5분 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최은영 – 여행을 일상처럼, 일상을 여행처럼)
- 5분 자유발언(박기훈 – 안전한 해운대구를 만들자)
- 5분 자유발언(김혜진 – 시설물 설치 후 철저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문현신, 김상수, 박기훈, 김성군, 김경호,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제244회 임시회

2019.10.15. ~ 2019.10.24.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 부결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부결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 · 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 보류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2020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 ■ 해운대구 다함께돌봄센터 및 반송실내놀이시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관광행정위원회)
-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주민도시보건위원회)
-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구정질문 / 5분 자유발언

- ● 구정질문(김정욱 – 도시브랜드 관점에서 해운대구청장의 비전)
- ● 5분 자유발언(김상수 – 찾아오는 송정해수욕장이 되려면)
- ● 5분 자유발언(정순세 – 구청사 이전을 조속히 촉구합니다) ▶ 철회

제245회 정례회

2019.11.11. ~ 2019.12.13.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 철회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철회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2020년도 예산 ▶ 수정가결
- ●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
-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 ■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조성)
- ■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재송한마음시장 주차장 건립)
- ■ 2020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반송2동 소규모공동주차장 제27호 시유지 매입)
-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회운영위원회)
-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기획관광행정위원회)
-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주민도시보건위원회)
-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구정질문 / 5분 자유발언

- ● 구정질문(김정욱 – 문화적 기반의 정책결정이 해운대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
- ● 5분 자유발언(박성식 – 반여초등학교 통폐합, 이대로는 안된다)
- ● 5분 자유발언(박기훈 – 안전불감증 우리 해운대구는…)
- ● 5분 자유발언(최은영 – 유기동물 입양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 ● 5분 자유발언(김백철 –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사람중심 해운대)
- ● 2019년 추경예산 및 2020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문현신, 김상수, 장성철, 김성군, 최은영,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해운대의정

02

의원발의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선진의회

council.haeundae.go.kr

• 의원발의 의안 (조례, 규칙 등) 현황

회기별	발의의원	의 안 명	소관 위원회
제239회 임시회	원영숙 박기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광행정
	문현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도시보건
	문현신 원영숙 장성철 정순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관광행정
	이상곤 서정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제240회 임시회	최은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이상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이상곤 임말숙 김백철 최은영 김상수	제11기 해운대에너지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	주민도시보건
	원영숙 박기훈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이상곤 김혜진 정순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전의원 (18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전의원 (18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
제241회 임시회	이상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원영숙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이상곤 박기훈 정순세 김혜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원영숙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이상곤 박기훈 정순세 김혜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
	원영숙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이상곤 박기훈 정순세 김혜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
	전의원(18명)	센텀2지구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	
	임말숙	해운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 의원발의 의안 (조례, 규칙 등) 현황

회기별	발의의원	의 안 명	소관 위원회
242회 정례회	김백철 박성식 문현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최은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이상곤 조영진 김혜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정순세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박기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원영숙 박기훈 정순세 김상수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혜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임말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 안전 지원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김혜진 이상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243회 임시회	장성철 박기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관광행정
	박기훈 원영숙 문현신 장성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김백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도시보건
	박성식 김경호 김성군 이상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이상곤 최은영 김혜진 박성식 김경호 김정욱 김백철 서정학 임말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244회 임시회	김경호 박성식 서정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이상곤 정순세 원영숙 조영진 김성군 장성철 박기훈 김상수 문현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245회 정례회	원영숙 김백철 문현신 장성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관광행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영숙, 박기훈 의원

취 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2018.11.1)으로 '도시재생추진단'이 신설됨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기획관광행정위원회로 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현신 의원

취 지 해운대구 공공장소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문현신, 원영숙, 장성철, 정순세 의원

취 지 해운대구의회 포상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곤, 서정학 의원

취 지 식품등의 기부와 나눔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식품등의 절약 및 사회적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은영 의원

취 지 초등학생 등의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 내 다함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곤 의원

취 지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 이행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제11기 해운대에너지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곤, 임말숙, 김백철, 최은영, 김상수 의원

취 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제11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를 우리구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영숙, 박기훈,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이상곤, 김혜진, 정순세 의원

취 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2018.11.1)으로 신설된 조직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규정하고, 대내외적인 활동의 활성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의원

취 지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적 이해관계,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 활동의 신고 등 직무와 관련 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의원

취 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관광 · 외유성 논란과 일부 의원의 일탈로 인한 비판에 따라 국외출장 원칙을 가다듬고 사전 심사, 결과보고 등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안

이상곤 의원

취 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영숙,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이상곤, 박기훈, 정순세, 김혜진 의원

취 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재무운영 합당성 등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와 일비를 상향 조정하고 정확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기간의 연장 근거 마련 및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영숙,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이상곤, 박기훈, 정순세, 김혜진 의원

취 지 대내외적인 활동의 활성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영숙,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이상곤, 박기훈, 정순세, 김혜진 의원

취 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대내외적인 활동의 활성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함

센텀2지구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

전의원

취 지 주민 공론화 부족 등 일부 개발반대 주장에 묻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를 원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반여 · 반송의 낙후된 도시환경은 인구 유출 및 심각한 양극화로 도시의 본질적 기능마저 무너져 가는 시급한 상황으로 해운대구의 기형적 발전을 정상화 할 방안은 동서 균형발전으로 대규모 단지 조성과 도시정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이 필요함

해운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임말숙 의원

취 지 2017년 8 · 2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29.48%)과 실거래 가격 지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등 부동산 열기의 위축으로 건설경기가 둔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고 대다수의 아파트의 가격변동이 아예 없거나 오히려 하락세가 있는데 조정대상지역 지정하는 건 너무 가혹한 규제라고 생각되며,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규제임에 따라 해운대구의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김백철, 박성식, 문현신 의원

취 지 해운대구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도로, 주택, 차량 등에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을 통해 장려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수거보상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최은영 의원

취 지 해운대구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곤, 조영진, 김혜진 의원

취 지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지원을 통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정하고 있는 식생활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과 식생활 교육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만들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정순세,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박기훈 의원

취 지 해운대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실명제를 통한 책임있는 수행은 물론 용역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 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영숙, 박기훈, 정순세, 김상수,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혜진 의원

취 지 상위법령 제 · 개정에 맞게 관련규정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코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 안전 지원 조례안

임말숙 의원

취 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김혜진, 이상곤 의원

취 지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각종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성철, 박기훈 의원

취 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사업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조항을 신설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기훈, 원영숙, 문현신, 장성철 의원

취 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백철 의원

취 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사유 중 의미 전달이 분명하지 못한 항목을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식, 김경호, 김성군, 이상곤 의원

취 지 공립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 내 설치된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여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곤, 최은영, 김혜진, 박성식, 김경호, 김정욱, 김백철, 서정학, 임말숙 의원

취 지 헌혈 참여 부족으로 인한 혈액 공급부족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헌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 헌혈 참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물론 헌혈자 및 권장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김경호, 박성식, 서정학 의원

취 지 해운대 구민이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곤, 정순세, 원영숙, 조영진, 김성군, 장성철, 박기훈, 김상수, 문현신 의원

취 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해운대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 등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영숙, 김백철, 문현신, 장성철 의원

취 지 건설안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대금지급은 정해진 시스템 사용토록 하는 사항과 2011년 제정되어 현재 이루어지는 절차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달라진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맞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해운대의정

03

구정질문

• 구정질문현황

회 기 별	질문자	내 용
제241회 임시회	박기훈	도시공원 조성 추진실태 및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제244회 임시회	김정욱	도시브랜드 관점에서 해운대구청장의 비전
제245회 정례회	김정욱	문화적 기반의 정책결정이 해운대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

제241회 임시회

도시공원 조성 추진실태 및 공원일몰제 대책마련

박기훈 의원
(재송1 · 2동)

박기훈 의원

해운대구의 도시공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3월 말 기준 해운대구가 조성 계획을 갖고 있는 도시공원의 등록 수는 총 74개로 292만 6,562㎡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조성된 공원의 수는 51개소로서 71만 5,604㎡로 약 24% 가량의 조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별 현황을 보면 우동 13개, 중동 9개, 좌동 18개, 송정동 4개, 재송동 5개, 반여동 15개, 반송동 10개로 앞에서와 같이 74개소의 공원이 292만 6,562㎡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 중 기 조성된 공원의 수는 우동 9개소, 중동 4개소, 좌동 17개소, 송정동 1개소, 재송동 4개소, 반여동 11개소, 반송동 5개소로서 이처럼 기 조성된 공원의 수는 51개소로 면적으로는 우동이 60%, 중동이 7%, 좌동이 88%, 송정동이 2%, 재송동이 29%, 반여동이 8%, 반송동이 5%로 총 71만 5,604㎡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의 수는 총 16개소로서 전체 미조성 도시공원의 수 20%가 넘는 실정입니다.

해운대 갑과 을 지역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해운대구가 조성계획 중인 공원부지 총면적은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을 포함한 해운대 각 지역이 44개소로서 187만 4,573㎡이고 그리고 재송, 반여, 반송을 포함해 해운대 을 지역은 30개소로서 176만 7,593㎡로 94% 비슷한 면적의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성된 공원의 현황을 보시면 해운대 갑 지역은 31개소 59만 1,960㎡인 반면 해운대 을 지역은 20개소로서 12만 3,644㎡로 갑 지역이 을 지역의 면적에 비해 5배가량 80% 더 많이 조성되고 있고, 개소로는 36% 더 많이 공원 조성사업이 집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운대 을 지역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해운대구가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직접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에 따라 도시공원 조성 계획과 실제 조성된 공원의 수가 큰 차이가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홍순헌

박기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원을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166개가 있습니다. 이 166개의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를 다 생각해 보면 거의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공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공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시가 결정 · 조성 하는 공원이 22개입니다. 반송근린공원, 해운대수목원, 명장공원 등입니다. 현재 조성률은 21%입니다. 그리고 해운대구가 결 · 조성을 하는 공원이 52개입니다. 별천지공원, 초록공원 등입니다. 조성률은 80%입니다. 공원수를 기준으로 보면 재송, 반여, 반송지역과 우동, 중동, 그리고 좌동, 송정지역과 차이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면적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조성을 해야 될 공원들은 대규모 공원들입니다. 해운대수목원(20만평)은 2022

년도 12월, 반송근린공원(8만 제곱미터)는 올연말, 명장공원(20만평)은 2023년 1월될 예정이며, 이 대규모 공원 3개가 조성되면 반여, 반송, 재송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 비율이 우동, 중동, 좌동, 송정보다 앞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구 계획 공원 52개소는 조성률이 평균 80%입니다. 특히 걱정하고 계시는 반송, 반여, 재송을 기준으로 보면 조성률이 85.3%입니다. 그리고 우동, 중동, 좌동, 송정은 76.6%입니다.

박기훈 의원

두 번째, 해운대구의 장기미집행 공원과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 일몰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홍순헌

현재 조성이 안 된 공원은 총 7개소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재개발구역에 포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일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향후 추진방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9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해운대구에는 청사포공원에 예산 136억원을 투입합니다. 부산시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토지은행사업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임차공원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특례법」을 적용해서 우리구 명장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부산시와 발맞춰 관련 예산확보를 통해 주민을 위한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훈 의원

셋째,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형태의 도시공원전략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어떠하십니까?

구청장 홍순헌

구성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아니라 반송, 반여, 재송지역에 대규모 힐링 숲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숲체원'이라고 명명하고 현재 산림청과 협의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명원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의원

공원 조성률을 보면, 재송, 반여, 반송이 85.3%가 많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마는 현실에 맞고 또한 주민의 피부에 맞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공원과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추후 공원 조성을 보면 해운대수목공원과 명장공원이 조성 진행 중에 있으나 해운대공원, 동백공원, 장지공원 등 우동에 집중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또한 송정동의 윤슬공원 또한 추진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해운대구 공원 실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과 휴양,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소외된 공원, 소외된 지역, 그리고 무엇보다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물 샐 틈 없이 행정에 그물망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과 깨끗한 도시공원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임시회

도시브랜드 관점에서 해운대구청장의 비전

김정욱 의원
(우2 · 3동)

김정욱 의원

21세기 초, 국제적인 비즈니스 관광 도시를 표방하며 비약적인 발전은 거듭한 부산의 해운대구는 현재 쾌적한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우리 해운대구 또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운대'라는 도시브랜드의 미래는 해운대구청장의 비전과 철학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보는 전반적인 틀에서 국민의 안전과 문화 · 관광정책 부문으로 오늘은 청장께 질문하려 합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시대 이동의 현대 거버넌스 시대에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최고위 리더에게 반드시 제시되고 공유되어야 할 중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의 준비 · 협조 상황부터 묻겠습니다. 물론 외교부와 부산광역시가 주관이 되어 세부행사를 진행하지만 이 초국가적 공식행사의 로케이션이 바로 해운대구라 그 책임과 주목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홍순헌

오는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 양일간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11월 27일 누리마루에서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4월에는 12개부서로 지원단을 구성, 8월에는 환경정비 기반사업을 발굴하였고 동백섬 일원 보도정비 등 총14개 사업, 3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손님맞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여 남은 정상회의 준비에 막바지 가속을 내어 대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해운대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사지원에 차질 없이 준비하여 해운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 BIFF가 폐막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해운대구에 관한 건 부산 중구의 비중이 BIFF원년으로 회귀의 시작을 알리는 반면 우리 해운대구는 거의 모든 야외무대 행사가 사라졌습니다. 2020년 BIFF에 대비해 구청과 집행위원회간의 새 시도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홍순헌

부산국제영화제 측과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영화의전당 앞 APEC나루공원을 활용하여 다시 파빌리온을 설치하고,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하여 영화의전당과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구 기타 행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해운대에서 더욱 풍성한 행사가 개최되어 더 많은 영화인들이 해운대를 찾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김정욱 의원

셋째, 우리구 관광특구 재설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홍순헌

전국 13개 시 · 도에 32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부산에서는 용두산 · 자갈치 관광특구와 해운대 관광특구 두 곳이 있습니다.

우리구 관광특구는 1994년 우동 · 중동 · 송정동 일원의 약 5.3㎢가 지정되었으며, 2002년에는 센텀시티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어 현재는 총 6.2㎢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구 관광특구도 지난 2002년 지정 이후 1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그간 많은 지역발전과 변화된 관광 여건으로 인해 장기적 관점에서는 실효성 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욱 의원

넷째, 우리구 해양레저사업 진흥 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홍순헌

우리구에서는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해양레저축제와 서핑해양레저 체험교실을 개최하고 있으며, 군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송정해수욕장 서핑 구간을 80m로 확대하는 등 사계절 서핑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해양레저 특화상품 개발과 해양레저 문화 확산, 해양관광 다변화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오는 11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욱 의원

다섯 번째, (구)해운대역사의 시민문화 공원화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구청장 홍순헌

(구)해운대역사 부지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구)해운대역사 시민공원 조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그간 비상대책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도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 · 단체 등과 협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뒤편 정거장 부지에 대해서도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공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부산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정욱 의원

여섯 번째, 해운대 어메니티를 대외 역점사업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홍순헌

해운대구로 승격 이후 지난 40년간 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하고, 도심이 과밀화되는 등 외형적 성장의 도시개발은 충분히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도시의 기능적 · 양적인 면을 중시하는 쪽으로 도시행정을 추진해왔다면 이제는 도시의 편안함과 즐거움이 우선시되는 도시로 변모해야하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또한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메니티 구민운동을 통해 조성되는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은 지속 가능한 정주도시로서의 가치를 높이게 되며, 이는 곧 도시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도시와 주민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의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정욱 의원

일곱 번째, 마린시티 해상방파제 건립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홍순헌

마린시티 조성 이후 해당 지역은 크고 작은 태풍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특히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한 침수 피해 이후 그 해 12월 수영만 마린시티 일원을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 현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용역은 부산시에서 2017년 9월에 착수하여 2020년 4월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 5월부터는 부산시에서 행정안전부와 기본 설계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호안증고와 잠제를 병행한 방식과 호안에 기립식차수벽 설치에 대해 최종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검토결과가 나오면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에서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기본 설계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정욱 의원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전 해양문화 관광 정책과 그다음에 센텀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 그리고 해운대구 전체의 균형발전 전략은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해운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감하는 지역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의 단초는 예산 확보일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경쟁 상대는 대한민국에 인접한 해양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가까이는 싱가포르, 요코하마, 홍콩, 멀리는 시드니, 시애틀, 밴쿠버 등의 유수한 해양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여행미디어 론리플래닛이 아까 말씀드렸듯 2018년 7월 아시아 최고의 여행지로 부산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만큼 국제적인 관심을 우리 부산 해운대는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해운대구는 그에 대한 상응하는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의 특징 모두는 해양레저관광이 기본적으로 내재화되어 있고 방문객들의 체류형 관광을 자연스레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해운대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해양레저 관광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기획하고 그 상당 부분을 국비에 호소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내방객들이 함께 어우러질 인프라가 우리 해운대에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안전 역시 사전예방이 최선의 길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역시 소요되는 마린시티 해상 방파제와 운촌 마리나 방파제 등 반드시 인명과 재산이 지켜져야 될 중요한 시설물들입니다. 이 시설물들과 해양레저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국비의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구청장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진한 질문이었으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과 경청하여 주신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정례회

문화적 기반의 정책결정이 해운대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

김정욱 의원
(우2 · 3동)

김정욱 의원

관광특구 해운대의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구민을 대신해 몇 가지 구정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공모 준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해양수산부에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공모 서류를 제출했죠?

관광경제국장 예.

김정욱 의원

제안설명 일자가 그 이후인 11월 22일이었습니다. 그때 구청장이 세종특별시에 가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실사일이 12월 3일이었는데 그때 역시 구청장이 직접 중앙정부에서 나오신 분들과 현장을 답사하면서 설명하셨지요?

관광경제국장 예.

김정욱 의원

11월 15일이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공모 제출마감이었는데, 해운대구청은 사업제안서 용역을 언제 발주하였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용역은 9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욱 의원

공모 계획이 9월 2일에 발표되었고 우리 구청에서 본 공모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제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단체에 용역을 줬을 텐데 해양레저 활성화 및 특화상품 개발용역 말고 사업제안을 위한 용역은 며칠에 계약을 하였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지금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지만 9월에 사업신청서를 넣고 9월 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정욱 의원

국장이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9월에는 제가 방금 말한 영산대학교 용역인데 그것은 이 공모사업 용역이 아니라 해양레저관광 전반에 대한 용역입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문의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 공모 제안서에 대한 용역 발주는 11월 7일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시설협회에 1천5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주고 급히 용역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모르시고 있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용역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용역 계약을 하기 전 기일이 촉박해서 사전에 자료를 일부 공유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정욱 의원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 정도에 용역을 발주한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시설협회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11월 7일에 했고 8일 후인 11월 15일에 해양수산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비 500억 원에 상당하는 공모사업에 응하는 우리 집행부의 행정 준비 상태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8일입니다, 8일.

관광경제국장

해양레저사업 공모계획이 9월 2일에 발표됐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좀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정욱 의원

좋습니다. 9월 2일에 해양수산부에서 공모 계획이 있었지만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11개 지역에 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9월 2일에 안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알 수 있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전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공모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수정하고 점검하는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이 사업은 지자체 단위의 공모사업이라기 보다는 부산시에서, 광역 단위에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욱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모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일반 해양스포츠, 레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통의 용역 회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너무 늦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요. 시와 TF팀도 있고 구 공무원들도 같이 있는데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11월 15일이 제출일인데 어떻게 11월 7일에 제안서 용역 발주를 그렇게 합니까? 미리 준비했다면 10월 말 아니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사전에 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김정욱 의원

보통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들, 특히 충청도 권역, 전라도 권역에서는 이런 국비 공모를 위한 전문 인력을 한두 명씩 고용을 합니다. KDI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본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두 명 고용해서 많은 국비를 지자체들이 확보합니다. 우리 구가 그런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그러한 전문 인력이 있다고 하면 관광문화과나 문화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가져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 수라든지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욱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이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장은 20~30년 이상 전문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을 하셨습니다. 경험상 충분히 준비하셔서 국비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준비였지 않나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세 가지의 경제특구를 갖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1994년부터 관광특구이고 2005년부터는 컨벤션 · 영상 · 해양레저특구입니다. 그리고 올해 블록체인 자율규제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센텀이 유력하게 문현동 금융 단지와 더불어 스마트시티이므로 블록체인 자율규제특구에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구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구청장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 부서장급 이상인 관리자들은 많은 고민과 더불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비 확보와 외교, 그다음에 우리와 같은 관광 플랫폼이 절실한 지자체에서는 매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구는 단순히 정부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아까 말했듯이 많은 행정 절차상으로 혜택을 주는데 그 이유는 바로 특성을 살려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 많은 정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국장과 더불어서 다른 부서장들에게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와는 다르게 국비 확보 등 많은 관광 플랫폼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의정

04

5분 자유발언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선진의회

council.haeundae.go.kr

5분 자유발언 현황

회기별	발언자	발언 주제
제239회 임시회	김상수	해운대에는 관광기념품이 없다
	이상곤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를 바라며
	원영숙	마린시티 미개발부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문현신	해수욕장은 우리 모두의 공공자원이다
	원영숙	이광수 시비, 해운대가 풀어야 할 친일청산 과제다
제240회 임시회	서정학	원전 비상계획구역 확대하고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해야…
	김혜진	반여4동 내 추진사업의 조속한 진행과 차질없는 마무리를 바라며
	원영숙	해운대 한옥문화도서관 건립으로 고품격 부산을 만들자!
	김백철	평화가 다가온다. 준비하라 해운대
제241회 임시회	장성철	반여3동 일신여객 차고지 활용 방안
	정순세	입주민을 위하여 집행기관이 나설 때다
	서정학	임도가 산림을 살린다
	최은영	주민의 니즈에 답이 있다
	김혜진	달맞이고개 벚꽃길 야간활용을 위한 제언
	문현신	혈세 먹는 해파리
제242회 정례회	김상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 현실화 촉구
제243회 임시회	최은영	여행을 일상처럼, 일상을 여행처럼
	박기훈	안전한 해운대구를 만들자
	김혜진	시설물 설치 후 철저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제244회 임시회	김상수	찾아오는 송정해수욕장이 되려면
	정순세	구청사 이전을 조속히 촉구합니다. [철회]
제245회 정례회	박성식	반여초등학교 통폐합, 이대로는 안 된다
	박기훈	안전 불감증, 우리 해운대구는…
	최은영	유기동물 입양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김백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사람중심 해운대

해운대에는 관광기념품이 없다

제239회 임시회 / 2019. 2. 13. 김 상 수 의원 (중2, 좌2, 송정동)

본 의원은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우리 구 관광기념품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제5의 첨단산업으로 불리는 만큼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관광정책이 전환되길 희망합니다.

얼마 전 청장님께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해운대의 관광 활성화 정책 대안 중의 일부로 달맞이고개를 문화특구로 육성하고, 해운대의 대표 먹거리와 해운대만의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 개발도 서두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해운대가 대표 관광도시로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해운대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관광기념품은 관광도시 해운대를 상징하고, 해운대만의 특별함을 담고, 트렌드(trend)에 발맞춰가고, 실용적이어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만의 고유 관광기념품을 개발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함으로써 해운대를 널리 홍보해야만 합니다.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지만 이들에게 뭔가 기념이 될 만한 상품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다양한 기념품 개발과 공모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으나 아직은 대표 관광 상품이 눈에 띄지 않아 그 아쉬움은 더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해운대구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관광기념품 개발과 판매를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하에 공모,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 관광기념품을 육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광기념품은 트렌드입니다.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기념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평가단을 통해 평가 후 기념품을 개발, 판매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 선호도를 평가를 통해 추가 생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솔밭예술마을, 아트마켓 등 지역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며 해운대를 대표하는 상품들을 만들고 있고, 주민들을 통해 입소문이 난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과도 협업하여 지역성을 가진 기념상품으로 개발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관광기념품의 판매와 공동 마케팅 추진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기념품이라 해도 관광객이 가져갈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해운대관광안내소에 바다상점이라는 공식 관광기념품 판매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기념품이 바다상점뿐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판매되어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달맞이안내소와 청사포안내소 기념품점과 부산시 관광기념품점 등과도 연계해서 해운대구 관광기념품을 알리고 판매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해운대에 오면 갖고 가고 싶은 해운대의 위상에 걸맞는 실용적인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야겠습니다.

올바른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를 바라며

제239회 임시회 / 2019. 2. 13. 이 상 곤 의원 (재송1 · 2동)

본 의원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항상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해운대구를 대표하는 18개 전 주민센터를 수차례씩 방문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으로 지정한 것으로, 1998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불법 주차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해운대구에서도 2017년 6,406건을 단속해서 5,233건, 5억 2,8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018년에는 6,173건을 단속해서 4,961건, 4억 9,31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정확한 기준이 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주차장 설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해당 부설주차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주차장은 가로 3.3m 이상, 세로 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운전석 쪽에 1m의 휠체어 라인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차구역의 정면에는 1개의 면당 1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대상과 운영 목적, 위반 시 조치사항, 신고 전화번호 등을 고지해야 하며, 장애인 표지판에 포함되는 정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문구를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구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장 운영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비장애인이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규격은 법으로 제정된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민들도 이를 지켜야 하는 의무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장애인주차장 설치 기준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설치하여 더 이상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의 불편을 통하여 마음까지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린시티 미개발부지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제239회 임시회 / 2019. 2. 13. 원 영 숙 의원 (우2 · 3동)

야경이 아름다운 마린시티는 2019년,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곳',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마린시티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면서 수려한 건물과 아름다운 야경으로 멋진 도시로 변모하고 있지만, 학교 및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이 부족하여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남은 마린시티의 구(舊) 한화갤러리아 부지는 지난해 초고층 콘도형 숙박시설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이 부지에 또다시 65층 4개 동의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공동주택 불허 C시설에서 공동주택 허용 E시설로 우리 구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지난번 숙박시설 건립 반대에서 제기되었던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와 빈번한 정체 구간인 해운대해변로의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해 질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주변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사업부지 바로 20m 앞에 위치한 해원초등학교의 경우 2007년도 마린시티 지구단위계획 당시 공동주택 5,638세대로 고시될 때 30학급, 952명을 수용할 3,446평의 학교 부지로 결정고시하였으나, 2011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생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심의 결과로 부지면적이 3분의 1가량 축소된 2,383평으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1,063평은 공동주택 부지로 팔아 현재 마린시티 자이 258세대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린시티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서 공동주택 가구 수가 2007년에 5,638세대, 2012년에도 같은 5,638세대인데도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2011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으로 해원초등학교는 2012년 3월, 17학급으로 개교하였으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두 차례나 교사 증축을 할 만큼 과밀학급이고, 매년 학급을 증설할 정도로 학생 수가 급증하여 지금은 34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엉터리였고, 개발 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린시티의 공동주택 가구 수가 당초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고시되었던 5,638세대에 근접해 있는데, 또다시 1,000세대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통지옥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겠으나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약 불편이 생긴다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편을 해소할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린시티는 공동주택이 5,000세대가 넘고, 오피스텔에 주거하는 주민들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한 곳만 있고 과밀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공동주택을 허가한다는 것은 마린시티 주민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외 다른 사업으로는 수익성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마린시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산시나 부산시교육청 또는 우리 구가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주민 편익시설이 되도록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본 의원은 꿈꾸어봅니다.

해수욕장은 우리 모두의 공공자원이다

제239회 임시회 / 2019. 2. 19. 문 현 신 의원 (우1, 중1동)

오늘은 기해년[己亥年] 그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입니다. 대보름에 행해지는 다채로운 세시풍속에 따라 우리 해운대구 역시 오늘 저녁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서 환하게 달집이 타오를 예정입니다.

'송액영복[送厄迎福]'

오늘 밤 환하게 타오를 달집과 함께 우리의 묵은 액도 소멸되고 올 한 해 해운대구정의 농사가 더욱 안정되고 풍요롭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진심어린 기원과 함께 오늘의 달집태우기 행사가 있을 두 곳의 장소, 우리 모두의 공공자원인 해수욕장의 운영 철학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도 유명하고 어쩌면 그래서 너무도 잘 아시는 해운대해수욕장의 해양레저시설, 요트 계류용 폰툰(pontoon)입니다. 무척이나 오랜 기간 이토록 아름다운 바닷가에 흉물처럼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백사장 내 인공 풀장과 데크의 어수선한 잔재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송정해수욕장에 자리 잡고 있는 '송정휴'라는 휴양시설은 컨테이너 안에 작은 냉장고,TV 등의 편의시설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대여동 6개와 관리동 1개로 총 7개가 놓여 있고 그 앞으로 또 널따랗게 방부목 데크가 펼쳐져 있습니다.

호안도로 상에서 보았을 때는 송정 바닷가의 탁 트인 풍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컨대 우리 해운대의 해수욕장을 화두 삼으면 곧바로 생각의 병목현상 내지는 언어의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특혜시비 등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해양레저사업에 관한 문제점은 물론이거니와 지난 행감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던 파라솔과 탈의장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운영 실태, 그리고 이미 협약이 종료된 IBC 이후 작금의 상황과 향후 계획 등 여타 모든 것들은 우선 차치해 두겠습니다.

그러하니 이제라도 다만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아 반드시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상업 논리가 우선시되어 특정인을 위한 전유물로 전락하거나 공유 풍경이 사유 풍경이 되는 소수만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업 논의 과정에서부터 신중히 접근하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성을 지향하는 올바른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가진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공의 자원으로서 함께 향유하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백사장은 자연이 선물해 준 우리 모두의 곳입니다.

이광수 시비! 해운대 풀어야할 친일청산 과제다

제239회 임시회 / 2019. 2. 19. 원 영 숙 의원 (우2 · 3동)

올해는 우리 선조들이 일제 식민통치 하에서 자주독립과 자주민임을 세계만방에 선언한 기미년[己未年] 3.1항쟁 100년, 대한민국 국호와 헌법을 갖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100년 전의 세상이 전환의 시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도 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와 반민주의 대립구도는 이미 역사적인 소임을 다했고 동북아의 냉전은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고 남북이 경제공동체가 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다음 세기의 비전을 채워가기 위해서 지나온 한 세기를 잘 정리하여 제대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해방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았고 이후 우리 현대사는 끊임없이 그 과거의 기억들을 망각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곁의 친일 잔재는 청산되었습니까?

천일파의 동상이, 문학관이, 문학비가 어디에도 친일했다는 아무런 기록 없이 여전히 풍경 좋은 곳에 호사를 누리고 있는 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해운대 달맞이고개와 청사포에서 바라보는 저녁달은 운치가 있다고 하여 대한8경에 포함시킬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1983년 해운대구청은 달맞이고개 정상에 비를 세웠습니다. 앞에는 '달맞이동산'이라는 글자가, 뒤에는 춘원 이광수의 '해운대에서'라는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춘원 이광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인 무정의 작가이자 2.8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1922년 이후 민족개조론으로 사이비 민족운동을 거쳐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 이후 광적인 친일파로 변신하여 일본 천황을 숭앙하여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부르짖으며 조선청년들의 징병, 학병 지원 등을 권고하였으며, 친일 문학뿐만 아니라 각종 친일단체의 중심 인물이 되어 관여했고 해방 후 반민특위에 친일 행위로 체포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2007년부터 지역주민들과 해운대구의회 고창권 의원 등이 이광수의 친일행적을 거론하며 해운대구가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즉시 철거하거나 적어도 시를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구는 계속 논란이 되자 지역주민의 여론을 물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구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는 1인 무제한 중복투표가 가능하도록 객관성을 잃은 설문조사를 하여 여론조사 조작 의혹만 키우고 말았습니다.

시사저널 2016년 8월 10일 자 기사에 '유명 관광지에 뿌리박힌 친일의 잔재'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부산 해운대의 이광수 시비는 친일 잔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이광수 시비를 철거하는 것은 친일 청산을 통한 해운대 구민의 자존심 회복이며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것입니다.

이광수 시비가 있는 뒷면 석비를 대한팔경이라는 명성에 맞는 안내표지석으로 이용하여 달맞이에서 바라보는 저녁달의 멋진 운치를 표현한 사진이나 상징성 있는 것으로 교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비 밑에 있는 받침석에 이광수 시비에 대한 기록을 새겨 후대에 전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1항쟁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을 기리는 뜻깊은 해에 제 나라와 제 민족을 배반한 반역자를 두둔하는 오역의 역사는 청산해야 할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원전 비상계획구역 확대하고, 차등요금제 도입해야…

제240회 임시회 / 2019. 3. 20. 서 정 학 의원 (반송1 · 2동)

최근 기장군을 비롯한 원전 소재 5개 자치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전기요금 인하 범위를 기존 원전주변 반경 5km에서 20km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원전 비상계획구역 및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범위를 반경 30km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월 부산시도 원전주변 반경 20km로 설정된 현행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해달고 요구하였고, 지역 시민 · 환경단체에서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30km 일대까지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점을 예로들어 구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는 이미 비상계획 구역을 30km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은 각종 피해를 감수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은 요금을 덜 내고, 혜택만 누리는 수도권 주민은 요금을 더 내게 하자는 것입니다. 부산일보 사설을 보면, 영국도 14개 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호주도 권역간 차등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발전지역인 수도권에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과해서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원전주변 반경 20km 범위내에는 해운대구 지역의 2/3 정도인 13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좌동 · 송정동 · 반송동 지역 전역이 포함된 반면, 우동 · 중동 · 반여 · 재송동 지역은 일부만 포함 또는 대부분 제외되어 있어, 향후 반경 20km 범위내에서 '차등요금제' 도입이 현실화 될 경우 같은 구에 살면서도 또다시 차등을 받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 우려가 됩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와 함께 '차등요금제' 도입범위 확대로 우리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한가지더 말씀드리자면, 해운대구민은 '원전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똑같은데 원전지원금은 왜 기장군에만 나오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근거법령인 '발전소주변지원법'이나 '지방세법'에 따라 지원이 되다보니 원전소재 지역인 기장군만 지원금을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발전소주변지원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원전 인근에 위치하면서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타 지자체와 함께 지원범위를 반경 30km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원전 인근지역은 그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고, 항상 원전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와야 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찾아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여4동 내 추진사업의 조속한 진행과 차질없는 마무리를 바라며

제240회 임시회 / 2019. 3. 20. 김 혜 진 의원 (비례대표)

반여4동 내 추진 중인 몇 가지 사업들의 조속한 진행과 차질 없는 마무리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최근 완료된 우수저류시설 지상부의 체육시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설치된 지 불과 한달 남짓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운동기구는 흔들려 사용을 못하는 것이 있고, 족구장 휀스는 휘어져 넘어가려 합니다. 웅덩이 주변 및 옹벽위 펜스는 너무 약해 아래로 떨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바닥이 인조잔디로 되어있는 배드민턴장은 미끄러질 위험 때문에 운동하기 어렵습니다.

한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벌써부터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수 및 재시공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과 함께 삼어마을 주택밀집지역의 불법주정차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될 예정인 11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사업은 사업비 27억여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없으면 현재 만들어진 체육시설 역시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삼어초 및 삼어마을 일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위험요소가 늘어나는 만큼 조속히 착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여 1 · 4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수영강변대로와 삼어로 간의 연결다리인 가칭 반여교가 제때 준공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한 도시고속도로와 연결을 할 수 있는 진입로가 이미 설계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찰청에서는 교통 혼잡등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한바 있으나, 혼잡시간대에는 통행제한 두고, 여유 있는 시간대에만 진입을 허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는 옥봉산 일대 명장근린공원 개발 사업입니다.

옥봉산은 해운대구, 동래구, 금정구에 걸쳐져 있습니다만, 비율로 보면 반여4동이 8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해운대구에는 삼어마을과 골프고 쪽 두 개 아파트 단지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라 교통 혼잡 등 불편만 가중되는데 반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편의시설은 동래구 쪽으로 옮겨져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들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반여4동 주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편의시설들을 해운대구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올하반기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모 아파트에서는 삼어초에서 일동아파트 후문까지 연결도로 공사가 진행중인데, 본 도로는 삼어 초등학교의 주 통학로로서 도로폭이 10M이상 되어야 학생들의 통학로가 확보되어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승인당시 주민들과 약속한 10M 도로를 반드시 개설해 어린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여주십시오.

해운대 한옥문화도서관 건립으로 고품격 부산을 만들자

제240회 임시회 / 2019. 3. 20. 원 영 숙 의원 (우2 · 3동)

고 금당 최규용 선생의 유가족 측에서는 작년 7월, 해운대구에 고택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 의사를 전달했고, 올 1월 우3동의 공공 교육문화시설로 사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건축적,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고택에 대한 선의의 기증 의사는 그동안 '공공 교육문화시설 건립'을 간절히 바라던 우3동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에 품격 있는 한옥문화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꿈과 희망을 이루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고택은 1864년 경남 산청에서 건축된 한옥으로 금당 최규용 선생이 1975년에 부산 송도로 이전 복원하였으며 작년 3월 부산 송도 재개발 사업 당시 부산시와 서구청이 문화재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되어 창고에 보관 중이었으나 창고 매각으로 작년 11월부터 천막에 덮인 채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본 의원이 부산시 문화유산과에 고택 구조물을 창고시설로 이전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비지정 문화재'라는 이유로 조치가 어렵다는대답과 함께 만약 사업을 시행할 지자체가 나선다면 해체된 상태에서 문화재 신청도 받아 줄 수 있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부산시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결과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이 무차별적으로 철거되거나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데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금당 최규용 고택의 역사성과 희소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국비와 도비 등을 지원 받아서 공공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이 고택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노상에 방치된 고택의 보관 상태를 고려해 타 지자체에 기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행히 우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의제 1호로 안건 상정하여 고택의 원형 보존 계획과 초고층 건물 속에 전통과 미래를 동시에 지향하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 지상에는 한국 전통 한옥에서 체험하는 도서관 열람 공간과 교육, 문화, 교류 공간을, 지하에는 첨단의 도서관 시설과 전시 공간 등을 갖춘 한옥 문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대표 관광지 해운대에 150년 전통문화유산 한옥도서관 유치는 해수욕장,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 등으로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해운대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훨씬 더 상승시켜 줄 것입니다.

초고층아파트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도시에 한옥문화도서관이 들어선다면 부족한 공원부지의 훼손을 최소화시키면서 친환경 전통 공간은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도시재생 모범 사례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가 다가온다. 준비하라 해운대

제240회 임시회 / 2019. 3. 20. 김 백 철 의원 (좌1 · 3 · 4동)

올해는 3 · 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한 해입니다. 3 · 1혁명운동은 총칼을 앞세운 일본 제국주의를 향한 항거이자, 근대국민의 대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민족운동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 · 1 운동이 왕정국가회복이 아니라 새롭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제를 세우는 혁명적 운동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근간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산하지 못한 친일세력과 냉전 이데올로기로 인한 한반도의 분단 및 각자의 이념 유지를 위한 극단주의로 인해 우리 사회는 불신과 갈등, 상호비방, 경쟁, 속임수가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화해와 배려, 평화, 사랑, 우애, 협력 같은 선의의 사상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애국선열들의 피와 땀,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작년 한해, 우리는 70여년 민족분열 역사상 겪지 못했던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1차, 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 까지 쉼없이 달려온 우리 민족의 행보는, 대결과 불신, 전쟁과 긴장을 넘어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내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서해권 산업 · 물류벨트, 동해권 에너지 · 자원벨트, 접경지역 환경 · 관광벨트 개발과 북한의 경제특구 발전계획을 접목하여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합니다. 한반도 균형발전과 북방 경제와의 연계 강화로 성장 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3대 경제와 평화협력공동체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이러한 역사적 행보에 발맞추어 다양한 활동과 남북경제협력 준비로 평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우리 민족의 전성기를 열어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 차원의 평화관광자원 발굴과 참여를 요청합니다.

강화군에서 고성군까지'DMZ 통일을 여는 길'이 조성됩니다. 10개 시 · 군에는 거점센터가 설치됩니다. 거점센터는 폐교, 마을회관 등을 새로 단장해 게스트하우스, 식당, 카페, 특산물 판매장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주민소득 증대도 가져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해권 벨트에는 해운대와 여건이 유사한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고층건물 50여개가 건설 중입니다. 해운대와 우호자매도시라도 맺으면 남북이 더욱 빛나지 않겠습니까!! 점진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면,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 전체의 후생과 왕래가 증진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 나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갈라져 대립했던 적대의 시대와 결별해야 합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연대와 통합을 모색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치적, 이념적 차이를 넘어서 함께 소통하고 대동단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후손들에게 남겨 줄 수 있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나갑시다.

반여3동 일신여객 차고지 활용 방안

제241회 임시회 / 2019. 5. 8. 장 성 철 의원 (반여2 · 3동)

반여3동 일신여객 차고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6기에는 이 부지에 대하여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많은 고민을 해왔으나, 이번 민선7기에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은 주차장입니다. 반여동 일신여객 차고지 일원을 조속히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반여2 · 3동은 부산시의 정책이주지로서 1991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시행에 따라 건폐율 90% 용적율 400%인 현지개량방식으로 개발하여 초고밀도 인구 밀집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주차 면적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2017년 기준 차량등록대수는 6천800여대이나, 가용 주차장은 총 2천 176면입니다. 무려 4천 630여대가 안전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이중 삼중으로 무질서하게 불법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로 인해 2017년에 발생한 2건의 화재 시 소방차의 접근이 불가하여 건물이 완전 전소되었으며, 사망자도 발생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 주차장 부족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반여2 · 3동은 엄청난 속도로 주민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분들의 대다수는 주차불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 사람이 떠나는 동네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반여2 · 3동의 주차문제는 부산시의 주거정책에 기인하며, 따라서 부산시와 우리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반여동 일신여객 차고지 일원을 조속히 매입하여 하루빨리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168건이나 되며, 그 안에서 순위도 있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반여2 · 3동의 앞날을 제대로 한번 고민하고 걱정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히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일신여객 차고지의 주차장 건설이 반여2 · 3동의 발전을 완전하게 보장하지는 않더라도, 시발점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입주민을 위하여 집행기관이 나설 때다

제241회 임시회 / 2019. 5. 8. 정 순 세 의원 (비례대표)

구청의 행정처분 지연에 따른 재송동 계룡리슈빌아파트 입주민의 고충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본 아파트는 2,000여 입주민이 2017년 연말부터 입주해 살고 있으나 지금까지 미준공 상태로 임시사용 허가만 나 있습니다.

물론 인접 교육 시설과 시행 · 시공사 간 분쟁으로 준공이 나지 않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구청이 승인한 분양공고를 근거로 입주한 일반 분양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점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들 입주자들은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취득세 및 재산세까지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합법성 못지않게 고통받는 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하여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분쟁의 중재자로서 아직 이렇다 할 방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해당 교육 시설은 매각을 원하고 있으나 시행(공)사는 금액이 시세보다 월등히 높아 요구에 응하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에서는 분양입주자를 조합원과 명확히 구분하고, 분양입주자들의 소유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도록 이해당사자간 쟁점 사항에 필요한 조합 측 재산을 분쟁 해소 시까지 처분치 못하도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는 등 선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후 조건부 준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분쟁 당사자인 인접 교육 시설을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조속 매입토록 유도하되 본 시설을 구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일부 부족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장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절충 방안이라 사료되어 제안합니다.

임도가 산림을 살린다

제241회 임시회 / 2019. 5. 14. 서 정 학 의원 (반송1 · 2동)

얼마전 방송을 통해 '산불은 나지만, 큰불은 없다'는 산림선진국 핀란드의 효율적인 진화 시스템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트럭이 지날 수 있을 만큼 넓게 만든 산림도로는 불이 나면 소방차 진입로가 됩니다. 숲속 어느 지점에서든 3~400미터만 가면 이 같은 산림도로를 만날 수 있는데,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그만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깊은 숲속까지 그물망처럼 촘촘이 놓인 산림도로로 인해 숲은 평균 1.5헥타르 미만의 작은 단위로 나뉘어 큰불이 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당초 벌목과 목재 운반을 위해 만들어진 이 산림도로에는 무기물만 있어 산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지대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국가 재난 사태까지 부른 강원도 산불이나, 반송 운봉산 산불을 보면서 본 의원은 임도 조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9.1 임시 회기때 해운대수목원과 운봉마을간 임도조성을 제안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운봉산 산불 발생시 임도가 설치 되었다면 훨씬 더 빠른 조기 진화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석대동 옛 쓰레기매립장 62만 8,000㎡ 부지에는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대지역에 들어서는 해운대수목원과 반송2동 운봉마을로 이어지는 약 3km 가량의 산길은 평소에도 지역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해운대수목원과 연계하는 임도를 조성한다면 지역주민과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웰빙 산책로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산림이 민가와 인접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반복되고 있는 산불로부터 소방차 진입 시설이 없는 마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민의 니즈에 답이 있다

제241회 임시회 / 2019. 5. 14. 최 은 영 의원 (중2, 좌2, 송정동)

얼마전 우리 의회는 국내교육연수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주민자치회,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청소년문화시설 등에 대한 생생한 견학을 통해 느낀 점을 중심으로 주민의 니즈에 맞는 정치, 행정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임시회를 통해 우리구는 (가칭)좌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시설명, 층별 구성부터 청소년과 아동의 요구를 반영한 안전한 놀이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타지역의 시행착오 사례들을 수집함으로써 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요자와 실무자가 함께 관련시설을 돌아보고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공공시설의 실질적 주인은 주민입니다. 기존 공공시설에 중 이용 빈도가 낮거나 대체 가능한 공간은 효과적인 리뉴얼을 통해 과감히 주민과 공유해야 합니다. 주민 공간이 마련되면 이웃과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마을의 현안을 자유롭게 토론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 지자체들은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셋째, 현대사회를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인문학을 통한 가치관 적립과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독서가 필수적 요소라고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은 사람이 모이는 곳, 주민의 요구가 있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운대구에는 해운대도서관, 우동도서관, 반여인문학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등 특색 있는 도서관과 함께 각 동마다 새마을문고도 있습니다. 이 공간들이 주민 중심으로 어떻게 개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무엇을 어디에 새로이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요구에 맞게 기존 시설에 내용을 입히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차원의 마을 공동체가 아닌 진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가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바랍니다.

달맞이고개 벚꽃 길 야간활용을 위한 제언

제241회 임시회 / 2019. 5. 14. 김 혜 진 의원 (비례대표)

달맞이길은 해운대 미포에서 송정 해수욕장까지 약 8Km 정도의 오솔길로, 부산을 대표하는 드라이브 코스이며 봄이면 꼭 들러야할 벚꽃 길로 유명합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달맞이 길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벚꽃길의 활용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달맞이 벚꽃길은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책과 사진촬영을 위해 모입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어두워 초저녁임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산책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달맞이 언덕뿐 아니라 해마루를 지나 송정으로 내려가는 길목에는 멋진 벚꽃 터널이 있으나, 너무 어두워 보행자들이 저녁에 다니기는 무섭기도 하고, 또 차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변이 벚꽃터널인지를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주보문단지 벚꽃길은 야간 조명을 활용하여 3월, 4월에는 낮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밤에 더 관광객들이 붐빕니다. 바닥에 설치된 조명을 벚꽃을 향해 쏘아 줌으로서 화려함은 물론이거니와 밤에 더욱더 벚꽃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 벚나무 가로수길이나 길보문CC 옆의 도로변은 야간 경관조명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벚꽃길 명소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수집을 위해 찾아갔던 날도 인산인해로 발디딜 틈이 없고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먹거리 장터도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벚꽃개화시기에 맞추어 800여개의 경관조명을 정비하여 점등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해운대구도 말로만 달맞이 고개 활성화를 위해 고민 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 명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맞이 벚꽃의 야간활용을 위한 경관조명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혈세 먹는 해파리

제241회 임시회 / 2019. 5. 14. 문 현 신 의원 (우1, 중1동)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방제사업 중 해파리 퇴치 용선 임차 예산의 합리적 지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해파리 방제를 위해 1.5km의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퇴치 용선을 임차하여 차단망 바깥 주변에 부유하는 해파리를 뜰채로 걷어내는 작업이 병행됩니다.

해파리 퇴치 용선 임차 예산은 17년 구비 7.2천만원, 국비 2천만원 합계 9.2천만원 전액집행(선당 용선비 20만 원), 2018년도 구비 9천만원, 국비 2천만원 합계 11천만원 전액집행(25만원), 2019년도 구비10.8천만원 국비2천만원 합계12.8천만원(30만원)입니다. 이렇듯 예산과 용선비는 해마다 점층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파리가 평소에는 차단망 안으로 진입을 못하지만 만조 전후 밀물 시간에 조류를 따라 그물을 넘어 해수욕장 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제거는 조류 시작 지점인 미포 쪽에서 제거하는 것이 쉽습니다. 해수욕장 쪽으로 진입할수록 넓게 확산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정기 순찰 운항을 하고 만조 전후 밀물 시간대에 미포 쪽부터 뜰채 작업을 병행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 작년에 총 23척의 92일간의 선박작업 일지에서도 보면 작업 내용이 전혀 없거나 부유 쓰레기 수거가 거의 전부입니다. 건져 올린 해파리 개체건수는 극히 저조합니다. 선박 한 척이면 효과적인 작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다대포 · 광안리 · 진하 · 와현해수욕장은 차단망 조차 아예 없거나, 어업지도선 한척 또는 민간수상구조선이 해파리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해수욕장은 하루에 8척이 근무한 날도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인건비와 유류비 포함 1일 임차 비용이 25만인데, 10일간 계약을 한 선박이 그중 7일을 태풍 등으로 인해 항구 대기 상태였더라도 25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항하지 않은 날은 임차비 전액이 아닌 비운항에 합당한 임차비를 따로 책정하여 지급할 것과 선박 수를 대폭 줄여 합리적으로 조정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송정해수욕장에 차단망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용선 임차 사업 자체를 삭감하고 어업지도선의 활용을 제안 드립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현실화를 촉구

제242회 정례회 / 2019. 6. 12. 김 상 수 의원 (중2, 좌2, 송정동)

부산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다른 지역보다 비싸 물가상승과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에게 큰 부담입니다.(20리터 기준 부산 850원, 서울 488원, 울산 600원)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고지대 주택가 밀집, 경사도 등 지역편차로 인한 수거비용 증대와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산광역시 구 · 군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은 2012년 단일화 추진계획에 따라 모두 동일합니다. (강서구, 기장군 제외) 해운대구는 20리터 기준 850원으로, 이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에 의해 판매가격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부산진구, 남구, 북구, 연제구가 봉투가격을10%~30%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종량제 봉투가격, 잇단 인하에 싼 구에 가서 사재기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해운대구도 쓰레기 봉투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2018년 12월말 기준 해운대구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은 45억 2천여만원입니다. 가격을 10% 인하할 경우 매년 4억 3천여 만 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적극적인 재활용 분리배출 유도, 종량제 봉투불법 제작 및 유통 근절, 야간 로고라이트 문구활용 및 신고포상금 제도 정비를 통한 무단투기 단속 등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대응 가능한 금액입니다.

구의 수입은 감소하겠지만, 물가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 소상공인을 비롯한 주민께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행 규정상 종량제 봉투는 부산시 모든 구 · 군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싼 곳으로 가서 구매하는 원정 구매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 · 군간 봉투 가격 차액을 노린 다량의 환불 및 교환 현상이 발생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 또한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운대구민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타 지역과 비교하여서도 형평성 있는 가격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 관계 부서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에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행을 일상처럼, 일상을 여행처럼

제243회 임시회 / 2019. 8. 29. 최은영 의원 (중2, 좌2, 송정동)

송정과 해운대의 관광객 장기체류 유치를 통한 비수기없는 사계절 관광상품화 콘텐츠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행객에게 일상을 여행처럼 선사하는 일명 '송정 한달 살기 프로젝트'입니다. 여름휴가 이후 한산한 송정에는, 뷰(view) 좋고 시설 좋은 펜션과 민박집들이 많습니다. 때마침 민박촌 개선사업이 진행중이라 민박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요즘의 관광 트렌드(trend)는 주요관광지만 찍고 이동하는 바쁜 여행이 아니라, 현지인처럼 지역의 문화와 생활에 녹아들어 한 도시를 깊고 느긋하게 즐기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송정은 조용한 바다인 반면 서핑과 같은 액티브(active)한 해양레저를 즐기기 좋은 곳이며, 세대와 국적을 불문하고 좋아할 만한 곳입니다. 장기체류를 통해 서핑 배우고 즐기기, 해안을 따라 느리게 폐선부지 걷기, 송일정에서 멍 때리며 일출과 일몰 즐기기, 해녀촌과 송정시장의 싱싱한 해물 먹방 등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근 달맞이언덕의 갤러리 체험과 삼포길 걷기, 영화의 전당과 영화의 거리를 통한 영화 체험, 청사포 조개구이 먹방과 다릿돌전망대 등 우수한 관광자원들이 너무 많아 한 달이 짧다고 느끼실 겁니다.

둘째로 안정적 관광산업을 위한 새로운 문화콘텐츠 생산을 제안합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와 〈순례길〉, 그리고 롯시니의 〈세비아의 이발사〉는 작품을 통해 도시가 세계인들의 문화코드로 자리 잡게 된 좋은 사례입니다. 이와 함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일명 '노란 조개'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장기간 해운대에 머물며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은 예술가들에게는 가히 로망일 것입니다. 유명인, 혹은 신인작가, 시대에 맞게 유명 유튜버도 좋습니다. 숙박업소와 연계해서 이들에게 레지던스(residence) 공간을 제공하고, 해운대와 연관성 있는 작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관한 우수한 문화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도시 자체가 관광자원화 되고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처럼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지면 해운대의 컬러와 상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대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과 도전을 통해 사계절 해운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전한 해운대구를 만들자

제243회 임시회 / 2019. 8. 29. 박 기 훈 의원 (재송1 · 2동)

7월 11일 국제신문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무단횡단 방지시설의 설치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해운대구를 비판하였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과 산업재해, 자살 등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해운대구는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편입니다.

2019년 7월 현재 해운대구의 전체 교통사고 586건 중 보행자 사고는 전체사고의 26.6%로 156건에 달하고, 총 12명의 사망자 사고 중 보행자 사망자 수가 7명에 이르며,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없는 곳의 사망자가 5명입니다.

인근 지자체의 무단횡단 방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m 이상 간선도로의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현황은 동래구 5만 1,924m 중 1만 1,885m로 22.9%, 수영구 3만 7,839m 중 6,620m로 17.5%, 연제구 3만 404m 중 5,070m로 16.7%, 남구는 5만 3,158m 중 6,469m로 12.2%인 반면 해운대구는 9만 5,865m 중 2,817m로 2.9%의 설치율에 불과합니다. 현황이 이러함에도 올해 500미터 설치 예산 밖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4년간 통계를 보면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율이 높아 질수록 보행자 사망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해운대구만 증가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해운대구는 최하위 펜스 설치율과 최상위 보행자 사망률을 가진 ‘사람이 걷기 위험한 도시’인 것 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무단횡단 방지시설의 설치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저조한 설치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방지시설의 설치가 보행자 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이 명확한데도 설치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구민의 생명을 도외시한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시민의 인식변화, 교통질서 확립 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시설 자체가 부족하다면 이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구민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물 설치 후 철저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제243회 임시회 / 2019. 9. 6. 김 혜 진 의원 (비례대표)

지난 7월 3일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로 간 강 군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두 달 전인 지난 7월 2일 해운대구 반여4동 소재 우수저류시설 지상부의 풋살장에서는 친구 10여 명과 풋살을 하던 중학생이 넘어지는 골대에 머리를 부딪치는 큰 부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체육시설은 2019년인 올 초 우리 구에서 개장한 시설로 그간 여러 차례 안전에 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3월 20일 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 체육시설의 안전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시설은 어르신, 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라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5분자유발언 이후 해운대구청은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체육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사후처리를 하였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인 지난 6월 23일 일요일 오후 본 의원이 체육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토요일인 22일 체육시설을 이용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체육공원 펜스 주변에는 배달 시켜 먹은 짜장면 그릇이 열대여섯 그릇 정도 있었고, 화장실 주변에는 물, 음료수, 막걸리 등을 마시고 난 빈 통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의 펜스에는 해운대구 늘푸른과의 반여저류시설 공지사항이 붙어 있고 인조 잔디 내 음식물 섭취의 제한과 쓰레기 관련 내용이 공지되어 있으나 주말이라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에서인지, 아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명등 지주에 설치된 배전함이 대부분 열려 있어 그 시간에 공을 차고 있던 학생들이 혹시 손을 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지 ·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본 시설 역시 관리주체 및 안전에 대한 문제 등에 계속 논란이 있었던 만큼 발 빠른 대처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태도를 보이다 발생한 인재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은 우리구의 의무이자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이번 사고는 해운대구가 구민 안전에 소홀했다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고, 강 군의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슬픔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해운대구는 관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과 유지 · 관리에 힘써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찾아오는 송정해수욕장이 되려면

제244회 임시회 / 2019. 10. 24. 김 상 수 의원 (중2, 좌2, 송정동)

말씀드릴 내용은 관광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더 나은 해수욕장의 이미지를 심어주어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을 만들어 가고자 제안것입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해수욕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저의 관할구역인 송정해수욕장은 해운대해수욕장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아직 미흡하거나 관심이 저조한 곳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나마 홍순헌 구청장님의 “해운대는 비우고, 송정은 채우고”의 정책방향에 따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빛이 보인다는 기쁨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송정 바다는 안전을 위협하는 지장물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돌멩이와 철 조각 등이 지난 여름부터 발생되어 입욕객들이 심심찮게 부상을 당하는 등에 따라 안전조치 겸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였으나 당장에 대책을 세우거나 하는 것은 감이 안잡혀서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사고는 일어난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이 우리가 할 일이고 해운대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송정은 사계절 해수욕장을 찾고 해수욕을 할 수 있는 현재에 관광객들이 다치고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을 때 작은 관심과 사전 예방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유비무환의 생각이 없다보니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송정바다는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중 정화활동으로 보다 안전하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입욕과 서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다음은 서핑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이 전국 최고의 서핑 메카로 발돋움 시키겠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기쁨의 물결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구청장배 국제서핑 페스티벌도 예산이 부족하여 개최를 못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이러다 후발주자들인 양양이나 포항 등에 모두 잃고 난 다음 외양간을 고치는 꼴이 될까 심히 걱정입니다.

확실한 정책방향을 잡아 서핑메카로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정책을 펼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송정해수욕장 일원은 서핑 복합센터와 서핑 빌리지, 서핑 광장과 테마거리 등 서핑특구로 조성해 서핑 대중화와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셨는데,

연간 40만 명이 찾아오는 송정해수욕장을 보다 안전하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서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광객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반여초등학교 통폐합, 이대로는 안 된다

제245회 정례회 / 2019. 11. 11. 박 성 식 의원 (반여2 · 3동)

본 의원은 최근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여초등학교와 위봉초등학교의 통폐합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여초등학교는 1974년 개교 이래 수많은 역사를 간직한 반여동 무지개마을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고령화가 지속되어 2004년 새로이 문을 연 위봉초등학교와 통폐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결과, 반여초등학교 54%가, 위봉초등학교 85%가 통폐합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 및 졸업생 등의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이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 등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학교 소멸이 지역 소멸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겠습니다.

학교의 내부적인 부분이야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소관 업무이니 차치하더라도 학교 밖의 문제는 전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우선 반여초등학교에서 반여3동 행정복지센터를 가로질러오는 통학로의 안전 문제입니다. 일방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반여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반로 구간에도 보도가 좁고 불법주정차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선천 복개 구간 역시 보도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해당 구간은 학생들뿐 아니라 수년째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기도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구간을 이미 위봉초등학교 통학 구역이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정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성인이 지나가기에도 위험한 길인데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교육지원청의 답변에 답답함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학교 밖의 문제이므로 구청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안전도우미 몇몇 배치한다고 아이들이 안전한 길입니까? 정말 아이들이 언제나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안전 펜스가 설치된 보행자 전용길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위봉초등학교 정문에는 횡단보도도 없고 버스정류장도 없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및 버스정류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반여초등학교가 위봉초등학교로 통폐합하게 되면 반여초등학교 부지의 경우 폐교 상태로 남게 됩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여 해당 부지를 주민의 품으로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행정구역상 위봉초등학교는 반여1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반여1동의 어린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위봉초등학교의 행정구역을 반여3동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합니다. 이런 여러 현안들을 주민들과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통폐합의 문제는 주민 합의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불감증, 우리 해운대구는…

제245회 정례회 / 2019. 11. 11. 박 기 훈 의원 (재송1 · 2동)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는 안타까운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9살인 김민식 군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짧은 삶을 살다간 고(故) 김민식 군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 이후 관할 지자체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재송초등학교 스쿨존의 안전과 과속단속카메라의 단속 부스 설치 건으로 해운대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과 실태 조사를 하여 단속 부스의 지점을 찾아 설치해 줄 것을 구청 담당과에 협조하였으나 10월경 설치 불허, 이유는 도시 미관상, 또한 구의 예산이 없고, 예산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경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재송초등학교와 인근에 있는 신재초등학교의 스쿨존은 다른 지역 초등학교에 비해 좁은 길이며, 비탈길이어서 평상시에도 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매년마다 안전한 통학로 보장을 위하여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구청에 과속경보시스템 등을 설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구와 해운대경찰서는 예산 등의 이유로 설치에 부정적입니다.

해운대구는 올해 초 석대천로에 과속단속카메라 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이유는 2017년 10월 27일 이륜차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였고, 2019년 1월 26일 또한 이륜차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여 해운대경찰서의 요청으로 해운대구는 2019년 3월에 단속 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륜차 운전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단속 부스가 설치되었으니 재송초등학교나 신재초등학교 등 위험이 산재되어 있는 스쿨존에는 김민석 군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단속 부스를 설치해 준다는 것인지 실로 되묻고 싶습니다.

모든 단속카메라는 최소한일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예방이 먼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부산시민은, 해운대구민은 누구에게 의지를 하여야만 합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그냥 운에 맡겨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신에게라도 기도를 해야 합니까? 사망사고 같은 큰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어린이 안전을 돌아보시겠습니까?

해운대를 사랑하는 선출직 공무원 여러분,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고 발생 시 지자체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 주민을 위한답시고 이름을 알리고 인지도만 알리고 보자는 이런 구시대적인 정치 행태, 해운대구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에 해운대구와 해운대구의회는 음공방관[陰拱傍觀]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경, 해운대경찰서와 머리를 맞대어서 무엇보다 어린이의 안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조기에 단속 부스부터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유기동물 입양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245회 정례회 / 2019. 12. 13. 최 은 영 의원 (중2, 좌2, 송정동)

우리 해운대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친화도시입니다. 그 첫 사업으로 올해 5월 부산시 구 · 군 최초의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송정동에 오픈하였습니다.

그 후 6개월, 벌써 강아지 13마리, 고양이 5마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현재 강아지 16마리와 고양이 5마리가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안정한 근무자의 고용 문제입니다. 현재 2명의 9개월 기간제근로자가 상근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주 5일 탄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3일은 2인이 함께 근무하고 주 4일은 1인이 근무하는 특이한 형태입니다. 방문자가 많은 일요일은 휴관합니다. 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동물에 대한 기본 지식과 생명을 대하는 애정이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구 보다 앞서 개관한 부산시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는 3명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5년의 계약기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안정은 양질의 전문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이는 센터의 공적 가치를 더 상승시킵니다.

둘째, 사육시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센터를 방문해 실측한 케이지의 크기는 약 55cm, 65cm, 55cm입니다. 현행 동물보호관련 법령에서 권장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좁습니다. 특히 근무자 퇴근 후 약 15시간을 좁은 케이지에서 지낸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큰 비용 부담 없이 대형견 케이지 혹은 이동식 펜스 등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양센터 2층의 유휴공간을 고양이 놀이터로 만드는 등 보다 효과적인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셋째, 센터의 홍보입니다. 진입로 등에 길 안내 표지 설치가 필요하며, 독립된 홈페이지 개설이나 구청 홈페이지의 배너를 보완하여 센터 소개뿐 아니라 입양 대기 중인 동물의 기본정보 제공, 이미 입양된 동물들의 근황 등을 소개하면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등 민간이 협력하여 좋은 아이디어 개발과 정기적 자원봉사, 청소년동물사랑학교 등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긍정적 의식 변화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사람중심 해운대

제245회 정례회 / 2019. 12. 13. 김 백 철 의원 (좌1 · 3 · 4동)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IMF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는 체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고성장, 완전고용의 신화가 붕괴되고,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이는 저임금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사회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이라도 고용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시 지속 가능한 업무가 9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도 업무 종사자는 전환 대상이 되었고 적용 범위부터 징계, 교육까지 공무직 인사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고, 정규직 채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하여 반복 채용하는 행위는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방교부세 등 예산을 배정하고, 정원 또한 최대한 반영해 주었으며 공무직 등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예산 편성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실행된 시점에 부산시는 835명, 65.3%를 전환하였지만 우리 해운대구는 8.4%라는 최하위 수준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부산진구는 절반 수준의 기간제근로자 수임에도 불구하고 2배 가까운 인원을 전환하였습니다. 더구나 올해에는 2명만 전환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수는 전환 당시 499명에서 올해 853명, 내년에는 880명의 사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정규직 한 명당 0.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들은 2020년 해운대구 생활 임금으로 부산에서 최하위 수준의 공공부문 급여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3회 결산 추경에서만 우리 해운대구는 관내출장여비 4억여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 예산이면 우리는 최소 40명에서 100여 명 가까운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건인건비 인력을 인정해 주는 가이드라인을 표준으로 해운대의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선도해 나가는 사람 중심의 구 행정을 바랍니다.

05

의원칼럼 (해운대신문)

발행월	발언자	제목
1월	박기훈	해운대 센텀으로 동반성장하자
	이상곤	복된 복지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2월	서정학	제대로 된 장산 보전방안이 마련되기를
	이상곤	올바른 먹거리로 우리 삶 윤택하게
	최은영	송정과 소통하고 싶다
	김성군	반송을 생각하며
	김혜진	생명존중과 동물복지에 앞장서는 해운대가 되기위해
4월	김성군	누가 센텀2지구를 불필요하다고 하는가?
5월	박기훈	운봉산 산불, 그 후
	이상곤	우리 이웃의 고독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8월	최은영	안삽니다 안갑니다
	김상수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
	조영진	천혜의 자원, 수영강 관리에 만전을 기할 때
	서정학	일본의 경제보복, 그리고 강제징용
9월	김백철	지방분권,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
	이상곤	헌혈, 우리의 사랑이다
10월	이상곤	나눌 수 있어 행복한 헌혈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11월	박기훈	로스엔젤레스 한인회와의 의원외교 성과보고
	서정학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기억지킴마을'

해운대 센텀으로 동반성장하자

해운대신문 1월 박 기 훈 의원 (재송1 · 2동)

얼마전 부산시가 제2센텀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ICT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에 국토교통부는 찬물을 부었다.

국토교통부는 그 산단일대에 있는 그린밸트 해제를 유보하고 재심결정를 내렸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산단안의 녹지비율확대, 조림지보존과 지역주민 공론화 절차등의 선결조건을 내걸었다.

지역발전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지금부터 다시 제2센텀을 부각시켜 지역의 발전의 토대로 삼아야한다.

당초 센텀시티는 우동과 재송동에 걸쳐있는 지역으로 모 건설회사가 아파트을 건설하면서 "센텀""센텀파크"특허청에 상표등록하였으나 법원의 최종판단은 "센텀"이라는 명칭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센텀"이라는 이름은 해운대를 넘고 부산을 넘어 타지역으로도 유포되어 수많은 아파트,상가등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의 중심에 위치한 "센텀"을 지역의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해운대구청 이전을 통해 "제1센텀"을 미래지향적 지역, 완전한 자족형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야 부산시가 추진중이고 해운대구 미래 비젼이 될 "제2센텀" 또한 성공적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

해운대구는 "센텀"으로 재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 제1센텀","제2센텀"이 모두 대박을 터트리길 기대해본다.

복된 복지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해운대신문 1월 이 상 곤 의원 (재송1 · 2동)

해운대구의 예산 60%정도가 복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구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고민 중 하나이다. 청년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저출산 ·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사회적 양극화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절대적 빈곤은 다소 극복했다고 볼 수 있으나, 상대적인 격차로 인하여 사회적인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빈곤이나 실업 문제까지 국가나 사회가 책임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라는 말이 있듯, 전세계적으로 가난은 대물림되고 있고, 많은 빈곤층들이 빈곤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풍요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한다. 따라서 국가는 크게 세 가지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 첫째, 의료 서비스 확충 등을 기본으로 하는 신체적 복지이고, 두 번째는 최저 생계비 보장과 같은 물리적 복지, 세번째는 여가와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마음이 즐겁고 편안한 정신적 복지가 그것이다.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평등과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 구조와 제도 위에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약 2개월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예산이 배분될까?'라는 의구심이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장애인 · 노인의 사회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된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탈무드에서처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 생각한다.

과거 영국과 현재 일본은 복지 지출을 늘려 사회적 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고용이 창출되고 내수가 진작되어 사회 경제가 나아졌다. 인구가 많지 않은 스웨덴도 국가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비용 · 고복지 복지 체제에도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이 나라들의 복지정책을 정면교사로 삼아 2019년 기해년에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복지사회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제대로 된 장산 보전방안이 마련되기를

해운대신문 2월 서 정 학 의원 (반송1 · 2동)

장산은 해운대의 주산으로 오랜기간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입산이 금지되었던 탓에 도시림 중 보기 드물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련산맥의 으뜸산 으로서 바다와 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고 춘천, 억새군락지, 너들바위, 반딧불이 등 특징적인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운대구 전역에 걸쳐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해운대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변지역의 확대와 함께 장산을 찾는 등산객의 급증으로 인해 등산로 확대 등 생태계 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장산을 가꾸기 위해 소규모 또는 따로따로 이루어져 왔던 사업들이 '장산 보전'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상호 연계성 없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산 보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장산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영역과의 협치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해운대구청에서는 장산 보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는 등 체계적인 마스트플랜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참에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장산의 등산로 관리방안이다.

현재 장산은 20여개의 입구를 통해 입산이 가능하며, 이용이 많은 등산로는 대천 공원을 비롯하여 4~5개소가 있다. 주등산로 58km, 부등산로 77km, 여기에 소로까지 합치면 이보다는 훨씬 많은 등산로가 장산에 존재하고 있다 하겠다. 등산로의 확장이나 샛길의 증가는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을 야기하는 만큼, 등산로에 대한 생태적 정비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통행에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등산로 시설이나 시설행위가 주변 생태계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아울러 샛길에 대한 자연휴식년제의 시행도 함께 검토되었으면 한다.

두 번째는 장산의 억새군락지와 습지생태계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산의 억새군락은 해발고도 약 500m의 능선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천이로 인한 관목 및 덩굴의 발달과 등산객의 답압으로 인한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장산의 대표적인 습지로는 삼림욕장 주변 습지와 고지대의 능선에 위치한 과거 목장지역 습지를 말할 수 있으며, 등산객에 의한 습지의 영향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장산 반딧불이 서식지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다.

장산 일원에 출현하는 반딧불이 종은 파파리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 2종이며, 서식지는 주로 성불사와 폭포사 일원이다. 살충제의 항공살포 지속 억제, 방문객 제한 등 집중서식지에 대한 보호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산마을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산마을은 1961년 퇴역장교 10명이 당시 원호청으로부터 정착대부금을 받아 장산 개척단을 결성하면서 시작되었고, 1964년부터 본격적인 개간이 시작되면서 지금의 장산마을을 형성하였다. 단기적 측면으로는 생태마을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계별 이주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장산은 해운대해수욕장의 명성에 가려져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람중심 미래도시'를 표방하는 민선7기를 맞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장산 보전방안이 마련되고 또 실천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올바른 먹거리로 우리의 삶도 윤택하게

해운대신문 2월 이 상 곤 의원 (재송1 · 2동)

어린 시절 학교 갔다오면 구들목에 이불 덮어 묻어 두었던 보리밥 한 그릇이 생각나는 하루이다.
우리는 살기 위하여 먹을까? 먹기 위하여 살까?

사람의 생각과 처한 환경에 따라 둘다 답이 될 수 있지만 쉬우면서 어려운 문제이고 더 더욱 어려운 답이다.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와 같은 맥락의 문제이다. 생활환경이 어려운 시절에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생활이었지만 지금은 먹기 위하여 살고 있고 음식을 하나의 문화로 매김하고 있다. 옛날에는 요리사가 요리 만드는 프로가 TV에 등장했지만 지금은 채널을 돌리는 곳 마다 맛집과 먹방 요리 프로그램으로 바뀌어 입과 함께 눈도 즐겁게 해 주고 있다. 음식의 맛은 삶의 기쁨이자 즐거움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다. 'I am what I eat' 라는 말이 있다. 이는 무엇을 먹느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이다. 19세기 프랑스 법관이자 미식가인 브리야 시바랭은 '네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면, 나는 너에 대해 말해줄 수 있다.'고 말했고, 또 독일 철학자 포에르바하는 '네가 먹는 것을 보면 너를 알수 있다.' 즉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생각을 하는 반면에 나쁜 음식을 먹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된다고 했다. 이는 음식이 인성과 행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현대인들이 겪고있는 병의 상당부분이 음식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좋은 음식, 올바른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글로벌화 세계화에 빠져 어느새 서구의 비자연적이고 육류 위주의 식생활이 우리의 식탁에, 우리의 외식 문화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우리의 건강 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유전자 변형 등으로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올바른 먹거리의 생산과 선택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4차산업시대에 올바른 먹거리로 우리의 삶도 더욱 윤택하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무엇을 먹을 것인가 고민해본다.

송정과 소통하고 싶다
<좌동-송정간 접근성 강화방안>

해운대신문 2월 최 은 영 의원 (중2, 좌2, 송정동)

송정은 해운대바다와는 또다른 매력을 지닌, 누구나 쉬고싶은 도심속의 한적한 휴양지이다. 햇살에 반짝이는 은빛바다, 멍하니 바다만 바라봐도 좋은 죽도 거북바위, 서핑을 즐기는 젊은이들. 또 요즘엔 청정해역인 광어골과 구덕포를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

송정과 관련되어 가장 많은 민원이 해운대구에 속하지만 해운대 아닌 듯한 "불편한 접근성"의 문제이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좌동-송정간 터널 속 보도설치 민원만 해도 무려 16건에 달할만큼 주민의 불편함이 오롯이 녹아있다. 오죽하면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한 송정터널내에 보도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을까? 하지만 이는 2016년 교통안전성 검토용역결과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무산되었다.

이렇듯 좌동과 송정, 물리적 거리는 겨우 410m인 터널하나 길이지만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심리적 거리는 상당함을 실감한다.

다행히도 최근 해운대구청에서 좌동-송정간 연결도로 건설과 옛길복원을 통한 테마형 도보길 조성에 관해 구체적인 준비를 한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가 말하듯 연결도로 예정구간인 좌동 소방항공대에서 송정우림필유아파트에 이르는 2km의 산길을 직접 걸어보았다. 군부대(53사단)의 철책선을 따라 걷는 경사가 제법 큰 산길이었으나, 도로로 조성될 경우 만성적인 교통체증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도보길인 부산환경관리공단 옆 메타세콰이어길 이른바 '고흐의 길'로부터 출발하여 송정터널 출구즈음까지 익숙하지 않은 신곡산 숲길 걷기에도 도전했다. 이 길은 6.25전쟁으로 징발되어 사라진 2.4km의 치유의 숲길로 송정의 추억을 되살리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한다. 안전성과 쾌적성을 담보해서 잘 조성 시, 20분이면 좌동에서 송정까지 충분히 도보로 가능한 거리라는 걸 확인하니 가슴이 뛰고 설레었다. 송정과 좌동을 잇는 지혜의 길로 복원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좌동-송정간 연결도로와 도보길 조성을 통해 송정과도 동일 생활권이 완성될 뿐 아니라, 소통 또한 한층 업그레이드 되리라 기대한다.

반송을 생각하며

해운대신문 2월 김 성 군 의원 (반송1 · 2동)

반송은 부산시의 계획에 따라 1968년 수해지역 이재민과 고지대 재개발 정책 사업에 의해 이주한 주민으로 형성된 정책 지역입니다.

수십 년 된 3,4층짜리 다가구 주택들이 대부분이며,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좁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세 많은 분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송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지원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마땅하지만, 부산시는 50년 넘는 세월동안 방치하여 동서 불균형을 심화시켰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부산시가 반송을 필요에 의해 정책적으로 만들었으니, 결국 이의 책임과 마무리는 부산시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간 일을 재조명하는 것은 어리석고 시간 낭비입니다.

정치인의 역할은 지금까지 혜택 받지 못했던 주민들의 권리를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것은 정치적 신념과 자존심으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예전과 달리, 점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 이 또한 엄청난 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송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인간관계를 통해 생긴 서로의 믿음과 사랑, 돈독한 신뢰로 인한 사람 냄새, 그리고 인류가 오랫동안 인간으로서 유지해온 기본적인 질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반송에 이사온 지 28년, 지금처럼 반송 주민인 것이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반송 발전을 위해 반송으로 이사까지 하신 윤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반송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생명존중과 동물복지에 앞장서는 해운대가 되기 위해

해운대신문 2월 김 혜 진 의원 (비례대표)

유기동물의 수가 10만 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 해운대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최초로 '유기동물 공공 입양센터'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장소는 몇 번의 논의를 거친 끝에 신 송정역 뒤편으로 지난 1월 7일 착공하여 4월 준공할 예정이다.

입양 센터가 개소하게 되면 쾌적한 환경에서 유기동물들을 돌볼 수 있고 더욱 체계적으로 입양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입양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 폭로된 한 기사에 따르면, 수많은 언론과 방송에 노출되어 유명해진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하던 개와 고양이의 상당수를 몰래 안락사 시켰다고 한다. '구조의 여왕'으로 유명한 해당 보호단체의 대표는 직원들도 모르게 안락사를 지시하고 안락사한 동물들을 입양 간 것으로 속이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대표가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고 공언해 왔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회비와 성금 등으로 연간 10억 이상의 금액을 후원금으로 받아왔다고 한다.

우리구가 현재 추진 중인 유기동물 공공 입양센터는, 앞으로 착공 후에는 운영 및 관리감독의 문제가 논의 될 것이다. 초기에는 직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차후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가 생긴다면 위와 같은 선례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관리주체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사명감과 열정 뿐 아니라 도덕적 양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꾸준한 관심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용두사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대처 방안을 잘 수립해서 운영해 나간다면 생명존중과 동물복지에 앞장서 가는 해운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누가 센텀2지구를 불필요하다고 하는가?

해운대신문 4월 김 성 군 의원 (반송1 · 2동)

지난 3월 15일 부산시의회가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의원으로, 반송동 주민으로 이번 정책토론회가 첨단산업단지의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이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토론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풍산부지 환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문제점, 개발이 불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모 정당 관계자는 발제내용인"센텀2지구 개발"에 대해 전혀 언급 하지 않았다. 오로지 부지환수의 정당성과 풍산의 특혜 정황만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는 센텀2지구 조성사업이 과거 부산도시공사에서 실패한 산업단지 조성사업들처럼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외에도 현 부지에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 교통대란 · 미흡한 초기 수요조사를 이유로 사업이 어렵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토론자 중 유일하게 청년일자리와 주민을 위해 지구개발 추진이 시급하다고 한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게는 비난이 쏟아졌다. 지역주민의 생각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배제당해도 되는건가?

한마디로 '견강부회(牽强附會)', '견문발검(見蚊拔劍)'과 같은 사자성어가 생각난 답답한 토론회였다.

해운대 입장에서 보면 풍산부지는 일종의 '아픈 손가락'이다.

군사보안시설이자 개발제한지역으로 반여동, 반송동 주민들은 창고하나 만들지 못하고 지역발전에서 소외되었다. 해운대의 다른 동네가 눈부신 발전을 하는 동안 멈춰있었고, 주민들은 지역을 떠났다. 지난 10년간 해운대구 전체 인구수가 1만5천명 줄어들었는데, 반여 · 반송동 인구는 3만2천명이 줄었다. 특히, 25세~35세 인구수는 절반이나 감소했다. 10년 만에 수많은 이웃이 떠나고, 젊은이도 없는 동네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개발과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성장 동력 마련이 시급한 부산의 입장에서도 센텀2지구 조성사업은 중요하다. 부산시 초기계획안에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으로 8.4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단지 비율을 조금 더 높이면 1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시는 센텀2지구를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업종을 유치하고, 도심에서의 접근성 확대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센텀2지구 조성사업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이다.

기존의 수요조사는 '참고용'자료일 뿐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인구밀집으로 인한 교통대란 문제도 시와 도시공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초기단계의 문제가 사업 불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아직 그린벨트 해제도 되지 않았는데 주민숙원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뜻은 개발하자는 것이다. 그간 여러 지역대표자들의 공약과 선거를 통해 확인도 받았다. 개발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자는 자리에서 불필요하다는 주장만 외치는 것은 주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반대자들은 사업 불필요 주장을 멈춰야 한다. 자신들의 주장을 주민 전체의 뜻인 양 포장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부산과 해운대의 발전과 성장동력 마련에 함께 고민해주길 바라며, 주민을 위해 어떻게 '잘' 개발 할 것인가 먼저 생각해 주길 바란다.

운봉산 산불, 그 후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안전한 해운대가 되자-

해운대신문 5월 박 기 훈 의원 (재송1 · 2동)

4월, 온 나라가 불바다에 잠겼다.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은 인제와 고성, 속초, 강릉, 동해시에 걸쳐 축구장 740여개에 이르는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 이틀 전 2일에는 해운대 운봉산에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4일간 2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인명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라고 하지만 4일 동안 화재현장을 지킨 본의원이 보기에 오히려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 천운이라 할 만큼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

총 동원인원 4,135명 헬기 17대 소방차등 50여대, 혹시 우리는 안전에 관해 공급자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크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만 열심히 훈련하고 우리만 열심히 회의했으니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겼던 것은 아닌가. 정작 산불이 났을 때는 아무런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부랴부랴 구두신고 손에 핸드백 들고 왔음에도 말이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시스템을 갖추고 그에 걸맞은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평소의 노력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가의 문제다. 평소에 예사로 여겼던 것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인 화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고는 운봉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해운대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다. 현장에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노력이 우리 해운대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

또한 운봉산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을 드리며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 마음의 상처가 가시길 기도해본다.

우리 이웃의 고독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해운대신문 5월 이 상 곤 의원 (재송1 · 2동)

최근에는 매스컴에서 통하여 혼밥, 혼술등의 단어를 쉽게 들을 수 있다. 또 다른 채널에서는 고독사에 대한 내용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갈수록 고독사의 숫자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참으로 쓸쓸함을 느끼는 대목이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가를 알 정도로 가족중심, 친족중심, 혈연, 지연에 의하여 서로 가깝게 살아 왔다. 이는 농업이라는 공통된 일로 인해 더욱 공고화 되어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계, 품앗이, 두레, 향약과 같은 상부상조 방식의 협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현대는 산업 구조가 바뀌고 교통과 통신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탈 지역적 이웃도 생겨 이웃의 개념이 이웃한 이웃으로 달라졌다. 그래서 아파트 앞집, 옆집, 위층, 아래층 이웃보다 멀리 있지만 핸드폰과 인터넷으로 쉽게 소통이 가능한 이웃이 더 친밀감을 가지고 자주 접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웃과 사회의 무관심과 소통의 단절로 인해 사회적 고립현상이 일어나고 이 사회적 고립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독사'라 할 수 있다. 그럼 고독사란 무엇인가?. 고독사(孤獨死)의 개념은 "아무에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고, 시신이 사망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고독사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노인빈곤을 들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에서 작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많은 사회적 변화를 야기되고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사유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다. 이러한 노인 빈곤의 증가는 노인 고독사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5%이다. 이분들이 은퇴 후에 재취업을 원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고령인구의 79.3%가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할수록, 건강상태가 악화될수록, 빈곤 상황에 놓일 확률은 높아지고 더 나아가 고독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가족구조의 변화이다. 과거의 우리나라는 대가족중심 사회로 조부모–부모–자녀가 함께 생활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핵가족제도인 2인 가족, 1인가족의 형태로 되어 있어 사회적 고립과 동시에 가족과 단절되고 있으며 이것이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현재 한국의 독거노인 가구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전체 노인의 20.8%인 137만 9천명이고, 이는 노인 5명중 1명이 홀로 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5년에는 1.6배가 늘어난 224만 8천명, 2035년에는 2.5배가 증가한 343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번째로 경기 침체와 장기불황으로 청 · 장년층의 고독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노인 고독사보다 더 심각함에도 청 · 장년층의 고독사 문제에 대해 정책과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분들은 경제적 문제와 가족과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구성원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더 심각한 고독사의 문제이다.

현재 고독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에 있고 특히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응하고 있지만 정확한 1인가구의 현황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각 지역 자생단체들의 협조로 세심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해운대구에 2개의 대학이 있으므로 룸셰어링 활용과 주말에 학생자원봉사들의 봉사시간을 이용, 통 · 반장을 활용한 주기적 교육과 활동비 추가 지원, 경로당 노인들을 이용, 신문, 우유, 요구르트 배달원, 택배기사, 전기나 가스 검침원들과 협약체결과 지속적인 교육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독거노인, 1인 청 · 장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분들과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생활 상담센터 확충이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청장년층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이음 상담센터 또는 상담 전문 대표전화를 개설하여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독사 없는 해운대를 위해 우리 해운대구민 한분 한분이 이웃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이웃 공동체 형성이 더 절실함을 느낀다.

안삽니다. 안갑니다

해운대신문 8월 최 은 영 의원 (중2, 좌2, 송정동)

NO! boycott JAPAN 〈안삽니다. 안갑니다〉
요즘 언론을 비롯한 각종 SNS에 유행처럼 번지는 구호이다.

아침에 잠에서 깨 퍼펙트휩 폼그렌징으로 세수를 하고, 유니끌로 티셔츠와 ABC마트에서 산 신발로 출근준비를, 운동 후 목축임엔 포카리스웨트, 출장에서의 숙박지는 토요코인, 업무 후에는 간단히 아사히 맥주로 갈증을 풀었던 '어쩌면 흔한' 우리네 셀러리맨의 일상. 가만히 살펴보니 가히 무서울 정도의 일본산 혹은 일본투자기업들이 우리 생활 속 깊숙이에 스며들어 있다.

우리는 왜 갑자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돌아보게 되었나?
얼마 전 일본 아베정부는 불공정한 위안부합의 재협상과 일제 강제징용노동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의 강한 불만의 표시로,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규제조치라는 경제보복을 취하였다.
WTO 원칙 위배라는 무지와 불화수소 북한 반출 문제 등 아베정부의 이성을 상실한 행태는 외교가 아닌 생떼수준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아베정부의 비상식적 판단에 우리 국민은 분노했고, 급기야 자발적 일제불매운동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고 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 생활속에 스며든 일본제품 리스트가 연일 업그레이드 되고, 국산인 줄 알았거나 혹은 별 대수롭지 않게 사용했던 제품들이 일본산이었음에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
일본에 여행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제품, 일본의 투자회사 제품마저 구매하지 않겠다는 인증릴레이를 넘어, 심지어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일본여행을 취소하는 애국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자발적인 2019년 대한민국 주인, 즉 '국민'의 모습이다.

영문도 모르고 일본으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혹은 강제징용으로 노예처럼 일한 청춘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정당한 보상과 배상은 당연한 요구이다. 더 이상 일본은 억지성 주장들로 세계시장의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다시금 정당한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일부 누리꾼의 표현처럼 '대한민국은 약소국, 불매운동 해봤자' '대한민국 국민의 냄비근성' 이라는 자극적 언사와 조롱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촛불로 대통령의 탄핵과 민주정부를 수립한 세계 유례없는 국민이다. 위기를 기회로! 라는 말처럼 이런 위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자립의 길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개싸움은 국민이 한다. 정부는 당당하게 정공법으로 가라!" 라는 SNS상의 글귀야말로 국민의 마음이자 명령이다.
나라를 구한 건 언제나 백성임을 다시금 떠올려본다.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

해운대신문 8월 김 상 수 의원 (중2, 좌2, 송정동)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 일찍 빨간 모닝차를 타고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아침 인사를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를 건네면서 모닝커피도 한잔 하며 지역 돌아가는 많은 얘기를 두서없이 듣고 나누면서 민원 발생 시 하나하나 실마리를 찾아 갑니다.

특히, 달맞이언덕 그리고 청사포, 송정은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기반시설과 환경은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이 되기 위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탁상공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의원, 주민과 함께하는 성숙한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와 견제의 의회, 발로 뛰는 의회, 열린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산 및 안건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주민들의 의견의 반영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이 중요시 되는 만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운영해 주민과 소통하는 의원, 항상 공부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겸손하게 다가가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몸으로 뛰고 현장에서 길을 찾고 소통에서 답을 구하겠습니다.

체면과 권위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현장에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와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현장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초심으로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민원해결사 119

천혜의 자원, 수영강 관리에 만전을 기할 때…

해운대신문 8월 조 영 진 의원 (반여1 · 4동)

우리 해운대구는 장산, 해운대 · 송정해수욕장, 온천 그리고 수영강을 가진 사포지향의 도시입니다.

지난 6월부터 그동안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던 수영강 관련 업무가 미래도시과로 이관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회의 구조가 세분화, 전문화, 다양화되는 추세에서 수영강 관리의 전문부서가 생겼으니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수영강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올 하반기부터 운행계획인 관광유람선을 1차 계획안에서 2차 계획안인 원동역사까지 운행, 동해남부선 철도와 연결되어 부산시민, 해운대구민이 불편 없이 이용토록 조속히 운행되기를 건의합니다.

둘째, 이번에 구청에서 설치된 반여4동측 석대교에서 세월교 구간에 설치한 LED등 교체는 아주 잘되었다는 주민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반대편 반여1동 강변도로 하부 측에 설치된 가로등은 너무 오래되고 어두워 가로등 교체가 필요합니다.

셋째, 수영강 천변에 4계절 초지, 초화 조성입니다.

특히, 반여1동쪽이 강변 폭이 넓어 4계절 초지, 초화 식재조성이 용이하며 초등학생 자연공부 쉼터나 주민들의 4계절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지, 초화 조성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동교 바로 위에 족구장, 배구장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간이 화장실이 설치되었으나 많은 운동주민들의 요구는 강 건너 동래구와 같이 족구장입구(원동교 방향)에 영구 화장실을 건립해달라는 민원입니다.

길 위쪽으로 정식 화장실을 건립 시 청결관리는 물론 체육구장 관리까지 모든 관리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체육인들의 제안입니다.

이상, 4가지 건에 대한 건의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보다 더 나은 살기 좋은 해운대, 깨끗하고 물고기가 뛰어노는 수영강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그리고 강제징용

해운대신문 8월 서 정 학 의원 (반송1 · 2동)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로 우리사회가 들끓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아베 내각이 수출규제 등 경제적인 보복에 나섰기 때문이다. 우리국민들도 일본관광 안가기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펼치며 양국간의 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다.

일본은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경제 부흥이라는 대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적 신뢰를 손상한 것이고,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다.

이러한 양국간의 갈등을 감정적 대립구도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이번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우리국민들이 다시 한번 올바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제징용은 일제가 중 · 일전쟁(1937년) 후부터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조선인 강제동원에 나선 일이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113만에서 14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근로동원이란 명목으로 국민학생까지 군사시설 공사에 동원하였고, 1944년에는 '여자정신대근무령'을 발표, 12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 수십만명을 강제징집후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하거나 군대 위안부로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강제징용된 조선인은 공사후 기밀유지를 이유로 집단 학살당한 경우도 있었다. 지시마열도 노동자 5천여명 집단학살, 남양지방의 섬에 끌려간 조선인이 일본군의 후퇴와 함께 동굴속에 갇힌채 무참히 학살당한 예 등이다. 일본 정부는 1990년 6월 강제징용 한국인 총수를 66만 7천여명으로 공식 발표했을뿐, 이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우리사회가 외면해 왔던 일본의 전쟁범죄를 우리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05년 최초로 시작된 재판은 최종 판결까지 무려 13년 이상이 걸렸다. 그동안 우리정부가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베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문제는 끝났다'라고 주장한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배상청구권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지,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와 일본 정부간의 피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절대 아니다. 배상의 책임 또한 불법 시민지배로 인해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정부가 아닌 제국주의 일본정부임이 명백하다.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범죄를 경제보복으로 덮으려 하고 있는 그들의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국민들에게는 강제징용이라는 전쟁범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이 되고, 국제적으로도 그들의 범죄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비수가 되어 돌아갈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

해운대신문 9월 김 백 철 의원 (좌1 · 3 · 4동)

자치분권을 위해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조세, 자치재정, 자치치안, 자치조직등 앞으로의 해결해야할 현안이 많지만, 주민들과 함께 하며 자치분권에 힘쓸 수 있는 방안을 지방의회 입장에서 고민해 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는 읍.면.동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여 자치능력을 발휘하는 풀뿌리 자치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는 제 3의 객관적 감사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므로 감시, 감사 및 견제의 기능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형편의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구조이다.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하는 생활에서, 서로 경청하고 직접 정책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 실현을 의회에서 만들어 내어야 한다.

직접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의원들이 지역에서 주민참여 토론 및 간담회장을 개최해 나가야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역 문제와 발전 방향, 심도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파악, 서로의 의견과 정책제시, 숙의되고 성장된 소통문화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문화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끌어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의회에서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의회 중심으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주민정책 대화의 장을 각 구의원들 지역마다 준비하면 좋겠다. 행사제목은 다 틀리겠지만, 지자체의 정책을 주민과 의원들이 Leading해 나가는 목표점을 두고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정착시키길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각 해당 지역에서 당을 떠나 지역구의원들이 대화의 장을 이루어낸다면 의회와 주민들이 1차 입법과정을 함께 하는 거버넌스(Governance)기능을 이끌어 낼 것이다.

의원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자체 연구의 장도 필요하다. 부산구군의회협의회가 이의 역할을 더해주면 될 것이다. 의원들 대상으로 학술회나 정책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단체장의 자의적 행정을 견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전문화는 필수당연적이고, 지방의회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인 반영 될 수 있는 시스템(숙의민주주의 도입 등)이 구축되어 함께 병행된다면 지방자치의 핵심을 가져 갈 수 있다.

지방에 많은 권한을 주는 분권화가 필요하지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위험요소가 많을 것이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고, 주민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우리 마을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실감하는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신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바라는 생활정치문화를 실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헌혈, 우리의 사랑이다

해운대신문 9월 이 상 곤 의원 (재송1 · 2동)

피를 나눈 형제, 피 같은…

피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끈끈한 정과 인간관계를 표현한다. 매년 여름 휴가철과 방학때가 되면 혈액 수급에 적신호가 켜진다.

다행히 10, 20대 청년층의 헌혈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헌혈수급 구조는 학생들의 휴식기간이 되면 비수기로 나타난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정한 적정혈액보유량은 일평균 5일분이지만 보유한 전체 혈액량은 평균 4일치에도 못 미칠때가 많다. 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헌혈이 일상화 되어야 할 것이다.

나도 어느새 헌혈 20여회를 하고 있다. 학창 시절 헌혈차에 올라 반 강제적으로 했던 헌혈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하는 헌혈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전할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 뿌듯함과 봉사 정신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헌혈은 16세에서 69세까지 가능하며,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혈액은 수입할 수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생명존중과 나눔 사랑의 결정체라 볼 수 있다.

2015년 308만명이던 헌혈자수는 2018년에는 288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저출산 · 고령화라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헌혈하는 청 · 장년층 인구는 줄고 있는데 혈액이 필요한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 될 것이다.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헌혈을 해 주어야하며,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건강하다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 또한 수혈을 받을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저축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해운대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구 차원의 헌혈 센터가 있다. 해운대구민의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우리 함께 팔 걷어 볼까요!!!

나눌 수 있어 행복한 헌혈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해운대신문 10월 이 상 곤 의원 (재송1 · 2동)

최근 '흡혈귀'라는 별명이 생겼다. 사람들을 만나면 헌혈하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붙은 별명이다.

전설의 고향에 나옴직한 구미호도 아닌데 헌혈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처음 한번이 힘들지 헌혈 한번하고 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뿌듯함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은 몸무게의 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약 15% 정도의 여유분을 갖고 있다. 헌혈자체가 이 여유분 중 일부이며 이마저도 1~2일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정상적인 혈액이 만들어진다. 오히려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면 건강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보통 전혈을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헌혈 방법으로서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 등 혈액의 전체 성분을 모두 채혈하는 것이다. 320~400ml 정도의 혈액을 10~20분에 채혈한다.

헌혈의 조건은 남성은 50kg 이상, 여성은 45kg 이상의 체중, 만16세~69세, 수축기혈압 90~179mmHg, 이완기 100mmHg 미만, 체온 37.5℃ 이하이다. 헌혈한 혈액은 4개의 검체로 나뉘어져 B형간염, C형간염, 성인 림프구성 백혈병 바이러스, 에이즈, 말라리아와 간기능 검사를 거치고 ABO혈액형과 Rh 혈액형 검사를 한 뒤에 수혈용 혈액으로 분류된다.

헌혈의 큰 장점은 헌혈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혈전에는 혈압검사와 혈액비중검사를 통하여 건강한 혈액을 체크하고, 헌혈후에는 혈액검사 결과를 메일이나 SNS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헌혈은 심장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적혈구 생산을 자극하여 지방간 축적과 간염등으로 발생하는 염증반응을 억제하여 각종 간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해운대구민 여러분! 최근 특별히 복용하는 약이 없거나 아픈 곳이 없으면 당당히 헌혈에 도전해 봅시다.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헌혈은 사랑입니다'. 라는 헌혈의 집 입구에 씌어진 문구가 생각나는 하루이다.

이제는 흡혈귀라는 별명보다는 헌혈 전도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로스엔젤레스 한인회와의 의원외교 성과보고

해운대신문 11월 박 기 훈 의원 (재송1 · 2동)

본의원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미국 LA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해 공무국외연수시 LA한인회와의 만남을 계기로 LA한인회와 해운대 청소년들의 문화교류를 위해 해운대소년소녀합창단, 해운대 청소년오케스트라와 협의 후 미국 LA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국 LA는 일제시대에 미주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직도 "안창호도서관, 대한인국민회 기념관" 등 도산 안창호 선생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한인들이 백만명이상은 거주하는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LA경찰국 부국장에 한인이 임명되는 등 한인들의 위상은 더욱 높아 졌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LA 글렌데일시와 우호도 도시 협약이 된 도시로써 작년에 도서보내기운동, 감사편지쓰기 운동 등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LA한인회장을 비롯한 한인들은 고국인 대한민국 청소년과의 문화교류사업에 많이 관심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LA 무용협회장님과 오페라단장님과 의논하기로 약속하였고 전반적인 내용은 해운대청소년문화담당자와 협의하기로 약속하였고, 현재 해운대소년소녀합창단과 해운대청소년오케스트라단과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번 LA방문시 LA상공회의소와도 교류를 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근면성, 성실성과 지식에 대한 우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LA상공회의소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기회가 된다면 LA상공회의소에서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젊은 인재를 영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해운대구와 업무체결(MOU)을 통하여 해운대구의 젊은 인재을 영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 또한 업무체결을 위해 본의원과 상임위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LA방문을 계기로 해운대구 청소년들의 문화 교류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해운대구 청년들에게 미국 진출에 꿈을 안겨줄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해운대구와 미국 LA와의 친밀한 관계유지로 해운대구의 관광, 문화등의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에 기초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기억지킴마을'

해운대신문 11월 서 정 학 의원 (반송1 · 2동)

지난달 15일, 반송지역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행사가 있었다. 반송2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억지킴마을' 선포식이 있었던 것이다.

'기억지킴마을'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겠지만, 치매 노인들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돌봄 속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마을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듯 하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말처럼 건강은 반드시 챙겨야 할 소중한 재산임에 틀림없다. 반송2동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6,200여명으로 동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해운대구 18개 동의 평균이 15%임을 감안하면 반송2동의 어르신 인구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손상되어 전반적으로 인지기능과 정신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이다. 치매는 주로 노년기에 많이 생기며, 심장병, 암, 뇌졸중에 이어 4대 주요 사인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신경질환이다.

해운대구에서는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에 따라 좌동에 위치한 보건소 부지에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고,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 · 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 궁극적으로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반송지역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8km가량 떨어진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반송2동이 '기억지킴마을'로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치매 인식개선 교육,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환자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 치매환자 · 가족을 위한 지원시책 등이 펼쳐질 것이다. 나아가 애써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될 것이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하며, 원하는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치매 친화적인 마을! 사람이 건강한 반송을 꿈꾸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반송2동 기억지킴마을'을 기대해 본다.

해운대의정

06

의정 스케치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선진의회

council.haeundae.go.kr

본회의 · 상임위원회 회의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관광행정위원회

▲ 주민도시보건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본회의

의정활동

▲ 운봉산 산불진화 격려물품 전달

▲ 강원도 산불 성금전달

▲ 센텀2지구 조성 촉구 결의

▲ 심폐소생술 교육

▲ 해파리어업선 민원 청취

▲ 주민위(여수 순천 견학)

의정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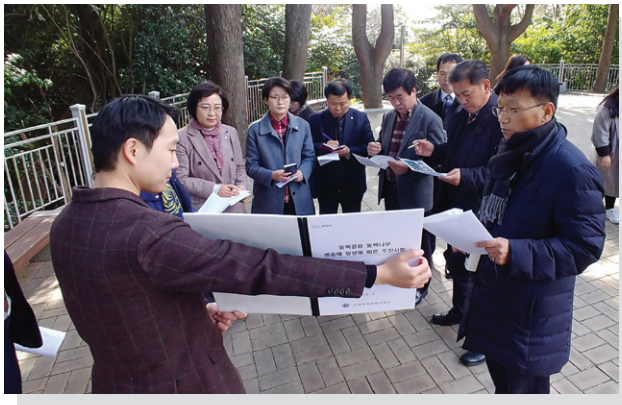
▲ 해수욕장 근무자 격려

▲ 해운대 해수욕장 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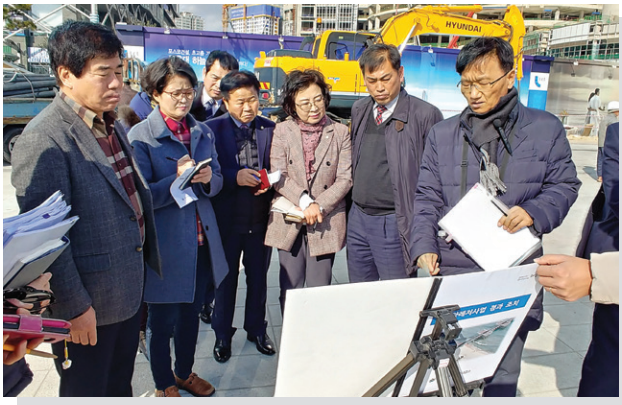
▲ LCT현장 방문

▲ 민원 해결을 위한 LCT사업 설명회

위원회 현장 활동



▲ 기획위 현장시찰(동백섬 일원)



▲ 기획위 현장시찰(해상방파제 철거 관련)

위원회 현장 활동

▲ 기획위 현장시찰(해파리 차단망 설치)

▲ 기획위 현장시찰(유기동물 입양센터)

▲ 기획위 현장시찰(송정 죽도공원)

▲ 주민위 현장시찰(장애 전담 어린이집)

▲ 주민위 현장시찰(보훈회관 방문)

▲ 주민위 현장시찰(재활용 선별장)

관내기관 방문

▲ 해운대경찰서 격려 방문(방한용품 전달)

▲ 해운대소방서 격려 방문(방한용품 전달)

▲ 시의회의장 면담(LCT진입도로 시비 예산 확보 관련)

▲부산경찰청 교통 시책 설명회

자매결연의회 방문

▲ 하동군의회 방문

▲ 제천시의회 내방

의원연구활동

▲ 마을민주주의연구회

▲ 마을민주주의연구회 대구달성 토성마을 견학 Ⅰ

▲ 마을민주주의연구회 대구달성 토성마을 견학 Ⅱ

▲ 4차 산업혁명시대 지방의회 대응전략 연구회

▲ 성동구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 견학 Ⅰ

▲ 성동구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 견학 Ⅱ

공무국외연수

▲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 슈트트가르트 도서관(어린이실)

▲ 슈트트가르트도서관(옥상태양광 시설)

▲ 베를린 코티운티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례 견학

▲ 드레스덴 광장 지하주차장 출입구

▲ 뉘른베르크 장애인복지시설 방문

해외의회교류

▲ 미국 글렌데일시 의회 협약식

▲ 글렌데일시 의회 우호협력 사업관계기관 업무협약식

▲ 글렌데일시 의장 영화의전당 방문

▲ 글렌데일시 의장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방문

의회체험교실

국내연수 · 교육 · 오리엔테이션

▲ 상반기 국내연수 (서울)

▲ 상반기 국내연수 (서울 성북구 도시재생사업)

▲ 하반기 국내연수 (울산)

▲ 하반기 국내연수 (울산국가정원)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해운대의정

HAEUNDAE-GU COUNCIL

■ 해운대구의회는

의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많은 구민 참여를 위해 모든 의회 진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구민 여러분과 더욱 더 완전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방청안내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을 원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안내

진정서는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어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구의회에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청원안내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날인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발행처** 해운대구의회 | ■ **발행인** 의장 이명원 | ■ **편집** 의회사무국

4809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 **TEL** 051-749-4091 **FAX** 051-749-4099 http://council.haeundae.go.kr

의회
해운대구의회
HAEUNDAE-GU COUNCIL